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金利

社說
産金政策强化

一

昨年부터 産金五個年計畫을세우고 그計畫達成을目標로 一路邁進中인 總督府當局에서는 그間 資金融通, 物資配給, 技術者斡旋等 여러가지로 鑛業者의便宜를 돌보아주어 增産을奬勵하여오는터이나 아직도 全朝鮮에散在한 大小金山八千四百餘鑛區의約四割假量이 睡眠鑛山으로서 探鑛에 着手하지안는 狀態이므로 當局에서는 從來보다 一層 積極的對策을 使用하기로 되어 砂金鑛, 石金鑛할것업시 그成績이 有望할곳으로 百餘鑛山을 調査指摘하여 九月中에 增産命令을 發動할터이라는데 勿論 增産에 必要한 資金融通, 物資配給等에 關하여는 當局에서나 또는 産金振興會社及 金山開發會社를通하여 極力斡旋할터로 이命令에 服從치안커니 또는當局의 指摘監督대로 增産에努力치안는 境遇에는 鑛業令에依하여 國策産金會社인 産金振興, 金山開發會社로 强制移轉시켜 積極的增産을 圖謀하리라고한다。

二

大體로 睡眠鑛山이 만흔原因은 鑛業權出願에잇서 競爭主義를 取해오는 關係上 미리試掘도 充分히하여보지안코 더퍼노코 出願부터 하는關係로 探算이 맛지안는 鑛山이 만키때문이라고도 볼수잇스나 充分히採算이 맛는鑛山으로서 採掘에着手도안코 放置되는것은 다만鑛業權을 어더가지고 그權利를팔아서 一攫千金을 하여보겟다는 所謂鑛山投機業者가 跋扈하는것이 큰原因이라고 볼것이다 投機業者의 大部分은 元來가 採掘할 생각이 업고 또 資金이 업스며 技術이 업는지라 物資配給, 資金融通等에 關하여 아무리 當局이斡旋한다하여도 그斡旋을 바다 探鑛하여보겟다는 생각조차 하지도안흘뿐더러 空然히 千兩萬兩의 黃金夢을 꾸어 地下의 黃金을 캐려하지안코 他人의手中에 들어잇는黃金을잡으려는데 汲汲할뿐이다 이가튼 投機業者의 跋扈는 正常한 鑛業의發達 나아가서는 産金增産計畫에 莫大한 支障이될뿐만아니라 一般社會에 虛妄한浮華心을 자어내어 社會에 惡影響을 미치는바적지안흠으로 當局은 먼저 手中에 드른 黃金을 캐려하는 投機業者를 一掃하여야 할것이다。

三

勿論 더퍼노코 投機業者인지 아닌지를 區別하려면 區別하기가 如干困難한일이 아닐뿐만아니라 도리어 鑛業界에 惡影響을 미칠念慮도 업지안흐나 當局은 今後에는 鑛業權을 許可할때에 期限을부처서 所定한期間안에 探鑛에着手치 안흘때에는 取消할것은 勿論이어니와 着手하엿다 하더라도 當局을 欺瞞하려할뿐으로 全然誠意를 認定키 困難한때에는 鑛業權의强制移轉을 命하는等의 方法을取하여 睡眠鑛山이 업게할 方途를 講究할것이며 이미 許可된 鑛山으로 睡眠狀態에 잇는것은 鑛區內容을 調査하여 一齊探掘하기에 命令을發하여 一齊探掘케하기에 힘쓰되 萬若 服從치안는때는 實力인 産金令을發動시켜 有力한 産金會社로하여금 探掘케하여 睡眠鑛山을 着着 開發하는同時에 産金增産도 꾀하고 또惡德投機業者도 一掃하여 鑛山界의 明朗化를 期할것이다。

第十六師團長更迭 石原中將親補

【東京電話同盟】陸軍省三十日午後五時十分發表 第十六師團長蓮沼蕃中將은 今回病으로함미아마 參謀本部附로 되고 그後任에는 石原莞爾中將이 親補되엿다

畑陸軍大臣 對滿事務局總裁發令

【東京電話同盟】對滿事務局總裁는 三十日 如左히發令되엿다
陸軍大臣 陸軍大將從三位勳一等功五級 畑俊六
兼任對滿事務局總裁

蔣政權弱化工作은 大小不拘斷乎進行
防共樞軸問題는研究後決定
兼攝外相記者團會見談

【東京電話同盟】阿部兼攝外相은 三十一日午後一時半 外務省에登廳하여 有田前外相과의間에事務引繼를完了하고 更히澤田、堀田、伊藤等大公使와 省內高等官一同에 對하여 一場就任人事를한後 外務省記者團과 會見하여 新內閣이抱懷하는外交政策의 基調를다음과가치 闡明하엿다

一、自主外交

自主獨往外交라고하면 어떤새로운 流行語를 쓰는것가치들리나 어느時代 어느나라를勿論하고 自主外交가 아닌나라가업섯다 그時의 緊急한情勢에따라 이自主的方針이 여러가지 外貌를보하게 되는것이다 我國에서도 要컨대 我國의立場을堅持하여 時宜에適合하도록 善處하여가는 意味로써 外交의實體가 全然變更되는 것이아니다 또自主獨往이라는 것은 自進하여 國際的 孤立을 取하는것이 아니고 自主的 氣分으로 協調한結果 드디어벗이되어 두사람이걷고 세사람이 걷게되기도하므로 外交라는것은 協調할수잇는 國家와 結合하여가는것으로 혼자가는것만이外交의 良方法이라고는 할수업다

一、防共樞軸問題

防共樞軸에 對하여는 前內閣이 對歐策을 中止한 그대로를 引繼한것으로 아직남아잇는 紐帶를 살려나갈는지 全然끈허버릴는지 또는 달리좀조흔方法이잇슬는지 今後研究에기다릴수밧게업다 例하면防共樞軸을 살려간다하드라도 前보다 强한것이되지못할는지도모르다 其他諸國과의 關係내談判中의 것을 繼續할지 中止할지 研究한後 決定하겟다 要컨대 外交는 國際關係를내便에 利益되는方으로 가지고가는것이므로 例하면 現在某某國과 不親하게 된것도 事實그것을 不親하게 해야할必要가 업는것은 協調하도록努力하고 現在사이가 조흔것은 더욱 그것을 擁護하여가겟다 이것은 國際關係의 調整을力說한意味이다

一、對蘇關係

노몬한事件에서 엿더한 不幸한狀態는 그의 非違가 明瞭하게되엿다 또帝國의 當然한 權益이 阻害되어잇는 事態도 可及的速히 解消치안흐면 안된다고생각한다 어떤것에든지 緊急의 順序가 잇스므로 對蘇國交調整에 對하여는 特히 愼重한 態度가 必要할것이다

一、事變處理方針

支那事變을處理하여 東亞에新秩序를 建設하는것은 帝國國策의根本이므로 蔣政權을조금이라도 弱하게하는工作은 効果의 大小에不拘하고 進行시킬必要가잇다 例하면 新中央政權의 成育을 꾀하는 同時에 日英會談에서 英國의 援蔣態度를 是正하여 가는것도 事變處理와 密接한 關係를가지고잇는것이다 事變을 매저지는데 어떠한 段階에잇서서도 그一步一步事變의 解決을 確立하는것이 必要하다

一、專任外相問題

專任外相은 이것들의조흔 外交方策이 確立하는것이 必要하다

外交方策確立까지 專任外相은不置
首相自身이重責을負擔

【東京電話同盟】阿部首相의 外相兼攝은 當然專任外相의 決定을 기다려 解任케될터인데 首相의 外相兼攝은 자못 重要意義를 가지고잇서 專任外相의 適任者를 엇기까지의 過渡的措置가 아니라는點이 極히注目된다 即國際情勢의 新展開에 對應하여 平沼前內閣의 對歐策中止의 뒤를이어 新事態의具體的方策을 速히 樹立할것은 阿部新內閣에 賦課된 重要使命이며 이點은 三十一日首相의 組閣第一聲에도 明瞭히 說明된것이다 阿部首相의 外相兼攝은 首相自身이 이重責에當하려는 決意의 表現이니 外交方策確立을 보기까지 專任外相을 設置하지안흘 方針이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三十一日閣議는 午後三時十五分부터 首相官邸에서 開會 阿部首相以下 全閣僚出席하여 于先青木藏相으로부터 明年度各省豫算編成의 根本方針은 前內閣의것과 갓게하고 그後의情勢變化로因하여 加除修正의要求를 提出토록하여 여기에對한 大藏省의方針을 近近閣議에 提出할터이므로 미리諒解키를바란다라고述한後 物價政策의 取扱에對하여 別項과가튼 決定을한後 三十日 中央物價委員會에서 決定한 物價統制實施事項에 對하여 畑陸相으로부터 노몬한附近情況에對하여報告, 最後로首相으로부터 暗取引取締方針에 對하여 說明이잇고 同五時半散會하엿다

首相事務引繼

【東京電話同盟】阿部新首相과 平沼前首相의 事務引繼는 三十一日午前十一時부터 首相官邸에서 擧行되엿다

廣汎한權限賦與
獨最高國防會議制內容

【伯林三十日發同盟】三十日附로 發布된 最高國防會議制設에關한 總統令內容은 다음과갓다
余는 現下對外政治情勢의 緊迫에鑑하여 그期間中行政과經濟의 指導를 獨逸國防의 見地로 보아 獨逸國防會議內에 最高國防會議를 設置함
一、會議는 꾀링元帥를 議長으로 나치스黨副總理, 內相, 經濟相, 總統官房長, 國防軍幕僚長 六名의常置議員으로 構成함 但會議마다 議長은 他獨逸國防會議議員其他人物의 出席을 求함을 得함
一、最高國防會議는 余가 政府또는 國會를通하여 諸法律을 發布할수업는時에는 余에 代身하여 언제라도 法律과 가튼 効力잇는 緊急命令을 發할수잇슴
一、一九三六年十月十八日附經濟四個年計畫遂行에 關한 法令에 基하여 꾀링四個年計畫長官의 權限은 右에 關한 總統의 權限도包含하여 今後最高國防會議의 管轄에 委任함
一、本總統令이 効力을失할 時日은 國防會議에서決定할것으로함
(寫眞은 꾀링獨元相)

獨、波外相訪獨要求 直接交涉示唆

【巴里三十一日發同盟】危機急迫을 圍繞하고 英國, 獨逸兩國間交涉은 世界注目의的이 되어잇는바 히틀러總統은 二十九日對英第二次通告에서 베크波蘭外相의 伯林訪問을 要求 危機切迫以來처음 波蘭의 直接交涉을 示唆하엿다 一方英國側이 히틀러의 要求를受諾하엿다는 風說이 流布되는데 그眞僞는 明白치안흐나 萬若히틀러總統이 끗까지 要求를 固執하면 그結果에잇서 重大한것이잇스므로 政界에서는 悲觀論이 有力하다

단市主權者 突然伯林에

【伯林三十日發同盟】過般단치히 最高主權者에 任命된 나치스黨단치히支部長 펠스터氏는 三十日夜突然 단치히로부터 伯林에姿態를나타내다 펠스터氏今回의伯林訪問이 如何한 目的인지 不明이나 단치히問題를 圍繞하고 獨波關係가 將次爆發點에 잇는때니 氏의伯林訪問은 極히 注目된다

內外問題를總括한 新首相의縱橫談
新聞記者團과一問一答

【東京電話同盟】阿部首相은 三十一日의 閣議終了後 午後六時十分부터 首相官邸에서 內閣記者團과 初會見을 行하고 一問一答을하여·事變處理 對外方策 國內態勢의 刷新等 當面의 諸問題에 對한 新政府의 方針과 首相의 所信을 披瀝하엿는데 內容은 다음과갓다

問 複雜多端한 現下의 國際情勢下에 잇서서 日本外交方針을 如何한方向으로 가져가려는가 新首相의政治的信念如何

答 日本의 現狀에 徵하여 무엇보다 먼저 하지안흐면 안될것은 支那事變의處理다 事變處理에 必要한 일은 多端하여 作戰上의 問題는 勿論 日支를 차고도는 第三國의關係를 調整하여가는것이라고생각한다 世界各方面의 國際情勢가 直接 또는 間接으로 日支事變에 影響하여오는것이므로 이事實을 直視하고 此間에 日本의 本來의 使命에 向하여 事變發生以來 생각하여온 新東亞新秩序의 建設에 適應한 여러가지 手段을 逐次斷行하여가는것이 只今가장 緊急한일이라고생각한다

問 新內閣도 事變處理를 中心으로하여간다고 側聞되는데 孤立化한 日本이 現在의 社會情勢에 잇서서 全支에 擴頭하고잇는 中央政府에 對하여 어떠케 具體的으로 임해가려는가

答 具體的政策에 對해서는 此際發表할수는업스나 國際情勢의 推移를 究明한다음 萬全을 期하겟다

問 對蔣政權問題 蔣介石政權에對한 今後態度는如何

答 蔣政權과는 和平치안흘方針으로 進行되고잇다고 생각한다

問 一旦決裂한 日英東京會談은 如何한 結果를 지울것인가

答 東京會談은 日英間 關係에 對하여는 適當한 妥結을 볼려고한것인데 처음으로 갈라질것을 豫測하고 한것은아닐것이다 相對方이 日本眞意를 理解하고 步調를마추어주면 一日차움으로 갈라섯다하여도 그대로 放置하는것은 조치안타 天津租界隔絕은 天津에서 必要하여 한것으로 決코 相對方을 괴롭히려는것이 아니므로 英國이 利敵行動을 고치면 隔絕도 解除될것이다

問 新內閣의 事變收拾을 期待하여도 조흔가

答 一步二步進行시켜 今日事態를 一日이라도빨리解決하도록 努力하겟다 이를爲하여는 各種手段을進行시킬터이다 이쪽으로부터 무엇이든지協調하여달라는것이아니다 正道를說하고 正道를行하거나 또는天津租界隔絕과가튼手段으로 我方의생각하는일에 저便에適하고 저便이말하는것이 理由가잇슬때에協調가生한다 此等手段은相對方과協所에따라 自由自在이어야만한다

問 防共協定問題 政府는獨逸에對하여 獨蘇不可侵條約의 成立에對하여 抗議하고 陸軍도 聲明하엿는데 此等問題에 對하여 首相은如何히생각하는가

答 此等問題에 對하여는 아직說明을도지안헛다 모두 今後생각한後에 할作定이다

問 防共協定의 廢棄問題에對하여 如何히 생각하는가

答 獨逸은 防共은하나 蘇聯과는 必要上條約을 締結한것이라는 口實을생각하고잇슬지모른다

問 獨蘇間의 關係가 今日의狀態가된以上 從來 盟邦으로지내온 獨逸을 今後 어떠케할것인가

答 防共에 關한限에서는 盟邦이다 그러나 獨蘇間 現狀을그대로두고서 防共協定을 强化하는것이 조흘지 또는 그리할수잇는지 업는지·또한 그는지 어떤지는 今後 研究하여볼作定이다

問 防共協定은 死文化하엿다고 보는가

答 一部分은 異常하게되엇스나 아직은 그대로 남겨둔셈이다

問 國際情勢問題 今日의 國際情勢로보아 日本은 孤立化하여잇다고 생각하는가

答 大體로 그러한方向으로 가고잇다고생각한다

問 歐羅巴에서 단지히 問題가 結着짓는 날에는 日本에 對해서 그前의 三國干涉과 가튼 것이 오지안흘가

答 그러한일이 잇슬는지도 모르나 잇스리라고 覺悟하고 對處해가지안흐면 안된다

問 支那事變을 中心으로하는 日英關係의 調節如何

答 나라와나라가 交涉하고잇는 以上相對便에 存立上의必要限度가잇스면 我方의 必要만을 내온便의 事情을 無視하는일은안된다 世界各國은 各各正當한道義에서 親密히살어갈것이며 不正한곳에서는 此를排擊치아니하면 안된다 支那에잇서서의 日英兩國의 關係는 如何한點에서 正常한關係에잇스며 如何한點에잇서서 不正한 關係에잇는가를 于先알아두어야한다 이限度야말로 愼重한·研究題目이다 다만마음에 안맛는다고하여 함부로 相對便을打開하여서는 안될것이다

問 東亞新秩序의 建設에는 日本은于先 政治上의 覇權을 掌握하고 經濟上에잇서는 協調해나가라는論에 對하여는 如何히생각하느냐

答 此는所謂抽象論이나 具體的問題에 對하여는 充分히考慮하지안흐면 안된다 此抽象論을 具體에옴기는데는 日本을主體로하고 支持해나가는것을 생각한다

問 日英會談은 相對便으로부터 再開를申込해왓스나 如何히處理할作定이냐

答 아직事情도잘모르고 잇지안타 處理할時期에 達하면 적적處理하겟다

問 對日米關係 通商條約廢棄로因하여 日米關係를如何히 打開하는냐

答 條約上으로는 因緣이끈허젓스므로 結果로도 無效업는 일이될는지도모르나 政府는 처음부터 此를正常化하기에 努力하나 最惡의境遇에對處할 日本의態度는 모든角度에서 檢討하여 一切의準備를 進行시키지 안흐면 안된다 物動計畫 生產力擴充 輸出入問題等에 對하여서도 各各 考慮지안흐면 안된다 米國의態度로因하여 誘發될바를充分히 究明한後 根本政策을세우는 일이야말로必要하며 親善使節의 派遣과가튼것을 企畫하고잇슴은조흔일이나 單純한 親善使節의派遣은 考慮한바아니다

問 三十日에行한 首相談의「自主的所信의遂行」이라고하는字句가잇는데 그意味는如何

答 어디까지 日本을主體로하고 모든 國際情勢에 對處하며 自主獨往의外交方針을 遂行해나가는것이 참된 自主獨往의外交다

問 專任外相問題 專任外相을 兼攝한것은

答 내가外相을 兼攝한것은 一時的이다 鐵道의 兼任과는 조금그 性質이 다르다 어떤사람을 專任外相으로 두느냐에 對해서는 가장조흐리라고생각하는 것이다

問 內閣制度改革問題 少數閣僚制는 現下內閣制度를改革할前提가되는냐

答 이는 前前內閣이 한일이므로 올킨거니 그르거니 말하지는안흐나 從來는閣議外에 五相會議라는것이 잇서서 特定의 事項에 對하여 特定의閣僚로 會議를 行하엿다 이것은 그特定의일을 잘硏究하는데는 조타고생각하나 閣僚는 各其 國務大臣이므로 現內閣에서 十人이 어느누구를 差別할이업시 一國務大臣으로서 充分히일하고십다 組閣에際하여서는 될수잇는대로少數의閣僚로할 생각이엇스나 事務의 形便上 잘되지안햇다 五相會議는 하지안흐나 特殊한것에 對해서는 二相 或은三相이 相議하고 다시 全體로相議하는境遇는 잇슬것이다

問 國政과 統帥와의 調整에關하여 大本營과 連絡會議를 開催할 意思는 업는가

答 陸海軍의 統帥에 關係잇는 사람이 國務大臣으로서 必要가 잇스면 이들이 잘處理해줄것이다 連絡會議에對해서는잘硏究하겟다

問 總動員關係勅令의 發動에關하여 首相의 權限을 擴張할생각이 잇는가 또는 小數閣僚制는 이것과 關係가잇는가

答 前者에 對해서는 아직모른다 少數閣僚制는 事務運營을 便利하게하려고 한것으로 制度의運用은結局사람에게달렷다

問 近衛樞相과 平沼前首相을 無任所相으로서 閣議에 列席시킬意向은 업는가

答 本人의 事情도 잇고 또先方의 事情도 잇는터이므로 無理를 해서까지 반드시 두어야할것도아니리라 생각한다 平沼前首相에게는 아직 相議하지안햇고 近衛樞相은 前부터 無任所相을 그만둘 意思이엿다고 하므로 講하지안햇다

問 行政機構改革問題 國防國家建設의 目的에 向하여 가기위하여 首相은 中央, 地方을 通하여서 그行政機構改革의 意思가 잇는가

答 아직 아무 成案도 업스나 그必要는 充分히 認定하고잇다

問 官吏制度의 改革案如何

答 改革이잇다고해도 무엇을하느냐에 對하여는 아직 具體的으로는 생각지안헛다 官吏뿐아니라 他에對하여서도 必要에應하여 迅速히 改革해나갓스면조켓다

問 首相의 政黨觀如何

答 政黨이擧國一致의 精神으로그힘을 國政에 傾注해나간다면 政黨이라는 團結은 조흔結果를 將來할줄로 생각한다 國民이 政府와協力하기爲하여서는 政黨이 必要한것으로생각하고잇다

問 首相은 新黨을만들어서 自己의所信에邁進할생각은업는가

答 업다

問 地方長官會議를곳招集하는가

答 政府政策決定을 보면 招集하게될것인데 單純形式的會議로는 無意味하다 時期는 몰으겟다

問 臨時議會를 招集하겟는가

答 臨時議會는 열 생각이업다

問 政府政策을發表하겟는가

答 아직相議하지안헛다

首都는張家口
蒙疆單一政權成立
今日新政府成立式典擧行
防共鐵壁은一層鞏固

【張家口三十日發同盟】支那事變卽後 察南, 晉北, 蒙古聯盟의三自治政府는 서로 蒙疆聯合委員會를結成코 東亞新秩序建設에 邁進하여 그 成果는 最近中國에서는 汪精衛의 和平救國運動을 主流로하는 新中央政權樹立氣運의 勃興, 歐洲에서의 危機切迫等, 內外諸情勢의 異常한 推移緊迫化에 蒙疆七百萬民衆은 더욱强力한 蒙古單一政權成立을 要望하게되어 過般來의 蒙疆各主要都市에서의 單一政權樹立促進民衆大會의 開催를 비롯하여 二十九日擧行된 第四次蒙古大會의 單一政權決議等에 依하여 三自治政府首腦는 서로 政權統合審議會를 設置코 具體的 成案에 對하여 審議를 進行시키고잇섯는데 드디어 組織하기로 決定되엇다 九月一日午前九時부터 聯合委員會 最高顧問室에서 德總裁, 察南晉北 各自治政府最高委員, 李守信蒙古聯盟自治政府副主席, 最高顧問及 部隊長及酒井興亞院連絡部長官 立會下에 新政權의 首腦들이 參集하고 ○○新政權首腦部의 任命式을擧行, 同十一時最高顧問室에서 新政權第一回政務院會議를開催코 各種基本法令及布告等 重要政務를議了하엿다 이리하여 歷史的新聯合自治政府의 成立을보자 午後二時부터 盛大한 新政府成立式典이 擧行될豫定이다 이리하여 蒙疆三自治政府의 統合協力政權의 出現으로因하여 防共鐵壁은 더욱 鞏固케되어 東亞新秩序建設은 一段促進을 보게되엿다

◇新政權組織大綱

【張家口卅一日發同盟】今番成立된 蒙疆新政權의 組織大綱은如左하다
一、新政權은 蒙疆地域을中心으로하며 東亞諸民族으로써 構成함
二、新政權은 蒙古聯合自治政府라稱함
三、新政權의首長을主席이라稱함
四、新政權은 東亞의道義를 昂揚하고 施政은民意를 大本으로함
五、首都는 張家口로定함
(寫眞은 德王)

江海關關稅布告

【上海三十一日發同盟】江海關監督李建南은 三十一日江海關關稅에 關하여 左와如한 布告를 發하엿다
政府의命令에依하여 中華民國二十八年九月一日以降 海關金單位分 又는 海關金單位手形에依한 關稅納稅는 이를 受理치안코 모든 關稅及諸收入은 華興券又는 法幣로 納入하라 海關金單位에 對하여는 依然從來대로 變化가업스나 法幣의 六片以下의 下落은 認定치안는다 海關金單位와 法幣及 華興券과 法幣의各各爲替比例는 每日海關에서 發表할것이다

寺內、大角兩大將 나폴리에到着

【나폴리三十一日發同盟】遣獨使節寺內大角兩大將은 隨員十一名을帶同 郵船鹿島丸으로 三十一日午前零時半 나폴리에 到着하엿다 一行은 나폴리에 下船暫時當地에 滯在하여 形勢를 觀望한後 羅馬로 向할 豫定이다

蘇軍陣地遂崩壞
敵戰車群을誘引肉彈突擊敢行
발사갈戰線

【발사갈高地三十一日發同盟】발사갈戰線最前線에서 優秀한蘇軍機械化部隊의 猛攻을 阻止하고잇는 山縣, 須見, 酒井, 長谷部各精銳部隊는 敵十五사치加農榴彈砲의 集中射擊下에 壯烈無比한 近迫肉彈戰을 繼續하고잇다 발사갈戰線은 지난二十日以來彼我對陣의 小康狀態가 激變하여 세번째로 불을 吐하는 一大戰場으로 化하여 할하河畔의陣營에서 八月의 明月을보며 멀리 이리무리 소래를드르며 今日 잇기를 誓하고 서로 激勵하여오던 我國境確保의 精銳는 再次蘇蒙軍擊滅의 칼을 들고 일어섯다 蘇軍은 重砲、戰車、火焰放射機로써 盛히 我第一線을 猛擊하다 塹壕內에 準備한 糧食도 猛襲으로 炎燒되어버리고 남은것은 銃과 허리에찬 軍刀와 軍用낭뿐이다 晝夜업시 連續砲擊을 繼續하는 敵砲彈에 발사갈戰線의 樣態는 인제는 完全히 그처저 풀이 욱어진 戰場도 砲彈에 패워서 荒野로化하엿다 敵彈에 몸을 가릴것은 戰線에 왓슬때 몸에지녓던 鐵兜뿐으로 그것조차 몃번인지 敵彈을 바다無數한 구멍이 뚤어지고 軍服은砲彈의 破片에 찌저저 버렷다 銃彈을 바드면서도 祖國愛에불타는我皇軍勇士는 蘇聯의猛烈한 逆襲을 물리치고 反擊하고잇다 二十三日早曉부터 노키始作한 敵砲彈은 車軸을 흘르는 豪雨와가치 我陣地에 集中되고잇다 砲彈은四散하여 砲煙砲塵을 일으켜 呼吸도困難할만큼 猛烈하다 그뿐아니라 蘇聯側은砲擊에 有利한 발사갈對岸의高臺를占領하여 我砲兵陣地에砲火를 集中하나 敵砲兵은 我方에 數倍되는 砲門을열고 十五糎加農砲彈을 퍼붓고잇다 蘇聯砲擊은 相當히 正確하다 我砲兵部隊는 一發一門擊破의 正確한 射擊을 하여하나식 敵砲兵陣地를 破壞하고 地上部隊는 敵戰車群을 近距離에 誘引하여 肉彈突擊을 敢行하여 破壞炎燒시키고잇다 발사갈戰線의 鬼神도哭하게하는 我軍의 猛擊으로 敵의防禦陣地는崩壞되어 겨우一角발사갈戰線에 버티고잇서 越境蘇軍을反擊하는 호롱바일作戰의 士氣는 더욱 昂揚하여 越境蘇軍은 三十日正午에 이르러 我軍에게 制壓을當하고잇다

敵機卄三擊墜

【○○基地三十一日發同盟】空中勇士 ○○基地에 急報한바 待機中이던 野口、橫山兩部隊는 곳의精銳 大塚部隊는 三十日三回에亘하여 地上部隊와協力 敵第一線車輛部隊에 猛擊의 비를 퍼부어 約五十輛의 車輛을破壞하엿는데 午後一時의 第二次攻擊에際하여는 高度一千米突乃至五千米突 敵陣上空에서 敵의 十大型 約四十機와 遭遇하엿스므로 大塚部隊擁護中의 吉田部隊는 即時 應戰하는同時에 亂戰中에 뛰어들어 秋空이 맑게개인 戰場上空에서 壯烈한 大空中戰을展開한후 二十三機를 確實히擊墜하매 殘餘의 敵機는 外蒙領으로 멀리 遁走하엿다 이戰鬪의 我方의損害는 自爆機一機 未歸還機 一機 負傷二이엇다

大日本航空株式會社 正副總裁發令

【東京電話同盟】大日本航空株式會社總裁는 元臺灣總督中川健藏氏 同副總裁는 日本航空輸送會社社長齋藤武夫氏로正式決定, 三十一日附로各各다음가치發令되엿다
貴族院議員正三位勳一等 中川健藏
大日本航空株式會社總裁被仰付
同副總裁被仰付 齋藤武夫

政治委員會組織
時局收拾의革新工作을擔當
正統派國民黨活動方針

【上海三十一日發同盟】汪精衛와 그뜻을가치하는 全國的愛國之士의 熱烈한 贊同支援下에 二十八日부터三日間 上海某處에서 開催된 國民黨第六次全國代表大會에서 明白히된 重要事項은 다음의諸點이다

一、重慶派國民黨에 對한方針
正統派中國國民黨은 重慶派國民黨이 從來蔣介石의 그릇된指導下에 여러가지 誤謬를犯하고 最近에는 中國共産黨의 壓迫으로 完全히 黨으로서의 機能을喪失 그傀儡로化한 事實에鑑하여 今年一月以降 重慶派中央執監委員會가 行한一切의 決議及命令을 全部無効로認定하는 根本的態度를 決定하고 近近中央黨務各機關을 改組하기까지 此等은 모두解散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러나 正統派에 共鳴하면서도 共産黨과 結託한 蔣政權의 苛烈한 壓迫을爲하여 本意는 아니면서도 重慶派의 桎梏으로부터 脫出치 못한 第五次中央執監委員에 對하여는 毫毛도 排擊할意思를 가진것이아니고 도리어 하루라도 速히 上海에 돌아와서 和平救國을爲하여 協力하도록 勸告할方針이다

二、正統派中國國民黨內部組織
國民黨總章을 修正하고 總裁制를 廢止하여 中央執行委員會主席一名을 設하고 總理의 職權을 이에代行시키기로 되엿는데 六全大會는 全會一致 汪精衛를 中央執行委員會主席으로推薦하엿다 第五次中央執監委員과 同候補委員은 依然重任을 認定한다 更히이以外에 中央執行委員二十八名同候補委員二十名 中央監察委員十六名同候補六名을 選出하여 今後黨務整理에 當케한다

三、對外方針
反共精神을 明白히하고 從來의 政策을 根本的으로 修正하여 中日關係를根本的으로是正하고 可及的速히 兩國國交를 回復한다

四、當面의活動方針
中央執行委員會主席汪精衛의 指名에依하여 中央執行委員中으로부터 數名及黨外各方面의同意를얻은人士를 包含한 中央政治委員會를 組織하여 新事態가要求하는 時局收拾의 革新工作의 要衝에當케하여 澎湃한 和平救國의全國的要望에對應하여 速히 國民大會를召集하고 國民의 總意에基하는 憲政을 實施한다

飯沼守少將歸還談

【東京電話同盟】渡滿中의 陸軍省人事局長 飯沼守少將은 三十日朝關釜連絡船으로歸來 同九時二十五分發 歸京하엿는데 다음과가치말하엿다
多田、磯谷兩中將과 會見하엿스나 入閣交渉으로 갓것이아니다 現地軍當局은 阿部內閣에 對하여는 매우好感을 가지고잇다 第二次滿蒙國境事件은 結局前回와가치 蘇聯軍의 慘敗에依하여 局地的으로 解決될줄밋는다 그것은 이番日中이다 最近蘇聯空軍十六型에搭乘한 어떤大尉가 滿洲에 不時着하여 我方에 捕虜가 되엇는데 들으니 六千米突上空을飛翔하엿기때문에 意識이矇矓하여 蘇聯領으로밋고 不時着하엿다한다 蘇聯은 거듭되는敗戰에 對하여 歐洲로부터 優秀한 武器를보내어 兵備를 增强하고잇는 模樣인데 緊要한兵이 急成한劣等部隊이므로 問題되지안는다

白市驛飛行場奇襲

【○○基地三十一日發同盟】我海軍航空隊는 三十一日未明 大編隊로 大擧重慶의 軍用飛行場白市驛에 最初의 空襲을 敢行하여 敵에致命的大打擊을 주엇다 白市驛은 重慶西方約二十키로에잇서 廣陽壩와함께 敵空軍이 平素愛重하는 戰鬪機와 大型機數十機를 隱藏하고잇는데 그날밤 田中少佐, 森(廣)大尉가 指揮하는 猛鷲隊는 强風을 무릅쓰고 一齊히同飛行場을 襲하여 三十一日午前三時及 四時二回에 亘하여 飛行場及白市驛市街에 巨彈을퍼부어 十數個所로부터 大火災가일어낫는바 全機가 無事히 歸還하엿다

無敵關東軍의偉力 投降한네大尉日記

第二次노몬한事件에際하여 日滿軍의 猛攻에 견디지못하고 드디어 白旗를 걸고 投降하여온 蘇聯赤軍兵士의 一隊가잇섯다 그引率者인 大隊長 네크라스프 大尉가 쓴 日記의 一節은 無敵關東軍의 威力이 如何히 絕大한가를 如實히 말하고잇다 이日記는 日滿軍의 攻擊을 正面에서 보고잇는 點에 價値가잇고 興味가잇다

▲七月九日 旅團으로부터 前進命令이잇서 前進을 開始하엿스나 即時 日滿軍의 十字砲火로 大損害를 밧고 舊陣地에 撤退하게되엇다 午後三、四時頃 戰車의 應援을 어더 再次前進하엿스나 戰車가 擊破됨을 따라 部隊는 全然統制를 일흐고 死傷이 만하 生存者는 僅히 壕中에 몸을 감추고 밤을 기다렷다 밤이 되자 砲火가 鎭靜되고 俄然强烈한 空腹을 感하엿다 八日晝食以來 一物도 먹지못하엿다 夥多한 損害에 加하여 疲勞困憊 그極에 達하여 士氣沮喪한結果 逃亡者가 續出한다 深更日滿軍 戰車의 夜襲을 바다 部隊는 大混亂에 빠지고 支離滅裂 그우에 退路가 遮斷되어 絕對絕命으로 되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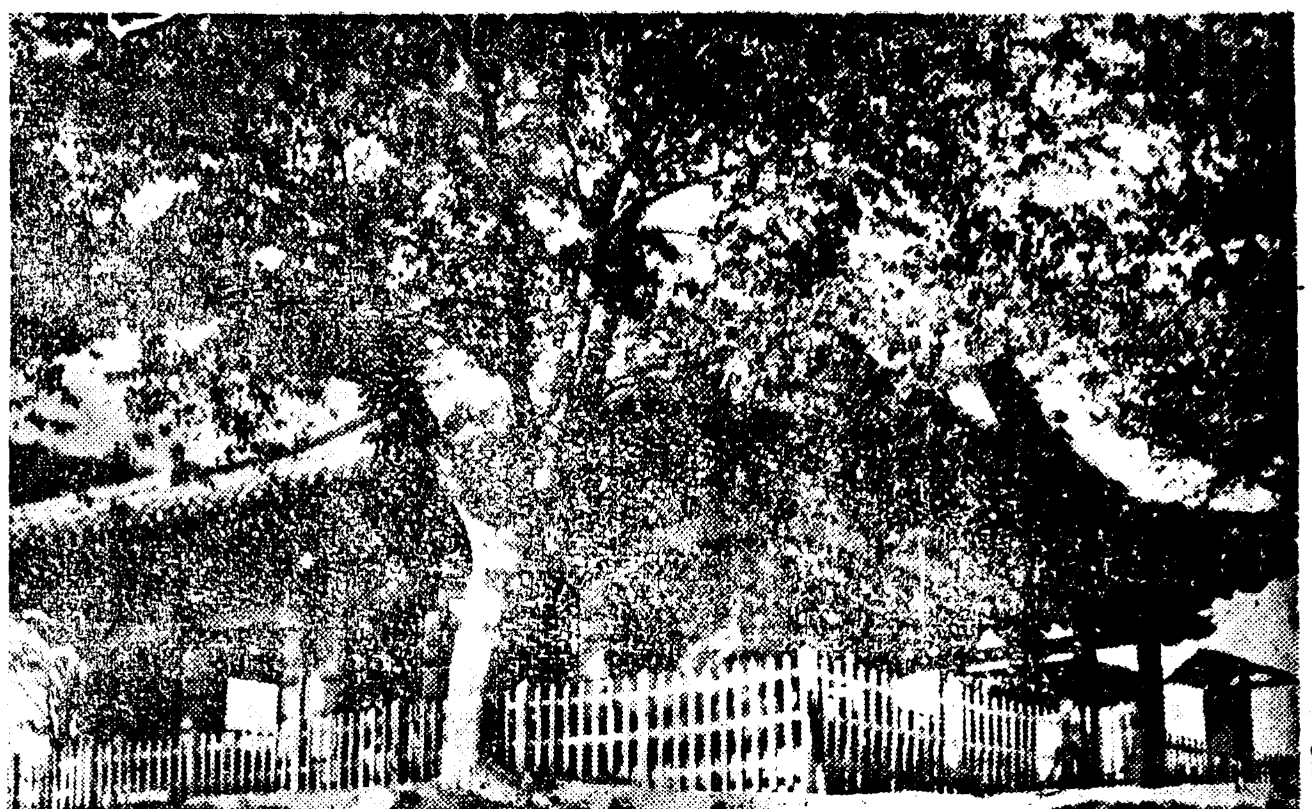
▲七月十日 夜明을 기다려 投降하기로 一決 第一、第二中隊의 生存者十二名이 前進한때에 日滿兵으로부터 射擊을바다 自己(大隊長)는 負傷하고 兵二名은 即死하엿스므로 白샤스로써 白旗에 代하여 投降하고 日滿軍에 收容되엇다 出發以來 七日의 惡夢中의 一週間이엇다

東海線

關東雄都江陵의자랑 鏡浦臺와烏竹軒!

五臺山中에水源을둔附近平野는免凶

本社特派員 李鴻稙 文 權泰完 寫 ③



강릉은 고래로 명승으로도 이름을 드날리엇다. 예전에는 예(濊)나라의 『태양을바든땅』이엇고 그중간의 변천은 고만두고라도 이곳에들어서서는 진관(鎭官)을 혹은 한찰도(溟州道)로 변개된다하여 영동육군의행정 중심시가 되어던만큼 그인정, 풍속, 문물은 가히 보암직한것이만타 남대천(南大川)북안에 이룩하여 수천년동안에대읍으로서 저통을 지키온 보람은 읍근각군(?)를 가지고 뚜렷한바가잇다 최근에 읍제가실시된후에는 더욱 발전하는도정에잇서 현재 인구는 일만팔천명이상을 헤이고 잇다 강원도전판이 그

러치만 그중에도 이강릉을본바탁사람들의 인심이란 후하고순박하기 짝이업다 게다가 아반의 세도와 함께흘러들어온 서울의 풍습은 이곳천래의 양풍미속에 단정을 한폭, 사람들이 쌀쌀한품이 미흡한 리는깨끗이 가시어버렷다 그래서 누구나강릉에 발을 디려놋는때의 첫인상은 산도조코 물도조흐나 사탐까지 겻드려조코나하는이항도에대한강달안 애착을 느끼게한다

◇……◇

삼척, 강릉의군계(郡界)를 넘어서면서부터 너른벌에벼가태어바람에휘롱을바드며 물결지는것을 볼수업다 삼남과는 천양의 차이인듯 올해강릉의 농사는우선『안전지대』에 괴첨해잇다본시강릉은 가무러야 농사가잘된다는말이잇다 올해에는 약이활이이양을못해 역시한발의영향은 적다고는 할수업스나 연태의풍수해로 소란을일으키던데 비하면오히려 올해와가튼 공전의한발소동에도 이만큼 기쁨지게잘되어타는것은 다허한일이라 안할수업다 게다가 토지는 비옥한터이라 벼폭기가 쑥쑥빠는것을보면 지나는 파객에게『풍년갑을』을느끼게한다 이곳사람들의 말을듯건대 강릉은예때로 수해에피해를당해서 그러치 천후만 순조롭다면 흉년에서 살수되는 미곡량은 자족자급은 물론 외지로 이출할 여유까지 잇다한다 이번의도에 강원도에 들어서서 울진, 삼척, 강릉 이세고을을 눈여여보앗지만 다소의 차이는잇슬망정 대체로 한발의 큰피해를입지안흔것은 살념의 비가 아니다 결국 오대산(五臺山)파 태백산(太白山)연봉에서 흘러내리는 수원(水源)이 바로이나마 이영동의 농민들을 애끼고 수호(守護)하는데 인색에잇다

◇……◇

예로부터 여사적 고읍으로 이름을 떨친강릉이라 유서기픈명승고적이 읍내를 중심으로 수얼지안케 만타 지금으로부터 이천여년전에 문수보현(文殊普賢)이라는이가 돌배를타고 바다를건너와서 창건하엿다는 고찰 보현사(普賢寺)에 건조하엿다는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인도식건축을 모방한것으로 유명한 당문(唐門)이라하며 송도, 연곡(連谷), 명주(溟州)이시인묵객의 발길을 멈추어 창해(滄海)에 녀을잇게하엿다는 해운정(海雲亭)하여 이외에도 만흔명승고적이 잇스나 그중에도 군계일학으로 뛰어난것은 경포대(鏡浦臺)일것이다

대시를 읍내에서 북으로한 십리가량나가면 주산(酒山)미테 둘레가 약삼십리쯤되는 연못을 망도하는데 이호수가에 좌정하여 잇는것이 경포대이다 바로동해와도이접하여 십오야 달밝은밤 잠잠한호수가에 일엽편주 띄워노코 흥겨워노는것도 조커니와 창공의 명월이 호수에도 어른거리고 동해바다에도 둥실떠서 대우에서 거니는사람에게는 한꺼번에 세달을 보게된다는 총치에 국치를자랑하는곳이다 대아래에는 백일홍(百日紅)한그루가 멀리오는손을 맞기는듯 수집은이 소를 다막시엇는데 다락에올라 난간에 두다리를 걸치고 명월을 드리고 잇노라니 인기척에 [illegible]가 갈대숲속에서 푸드득 소리나며 [illegible] 리공중으로 [illegible] 총합연으로에 경포대의 한일홍완상치못하는것은 또한 한퇴는일이나 신라의선인(仙人)영랑(永郎)술랑(述郎)파가치 하일놀이 즐기는 풍류객이 아닌다음에야 『소망』도 『나망』이다 귀로에 율곡(栗谷)선생의 탄생한 오죽헌(烏竹軒)을 차자 선생의문인 권처균(權處均)선생의 십삼대손이라는 노인의 친절한안내로 선생의 유적유물을 감회깁게 보앗다 (계속)

(사진은 관동팔경의 경포대)

露宿하는入京災民

끼끌히는것도걱정이거니와保健도問題

京城府에서豫防注射實施

한재때문에 고향을떠나서 경성으로 모여드는이재민들은 거개가집다운집을 쓰고살수업서 한강철교아래며 기타 겨우비나피할곳을 차자 거적쪽각이나 깔고지내는것이 보통이어서 먹을것도 걱정이거니와 보건상 한심한 경우가 만타 더구나 천염병이라도 생겻다가는 큰일이므로 경기도위생과에서는 우선 가장위태로운 장질부사를 미리 막기 위하여서 수일전부터 이들에게 예방주사를 주고 잇는데 벌써 주사를맞힌것이 이재민의 약반수가량에 달하고잇서 불원내로 예정수대로 전부를마치게될모양이다

(波峰)사건일주년기념일을 마지하여 오십구원삼십전을 거더서 조선군애국부에 국방헌금으로헌납하엿다

檢閱陣强化次로 今日檢閱官會議

古川課長統裁로總督府서開催

전시동원에 지국이중대한관계를가지고잇는 신문잡지 기타각종출판물에대한 취체진용은 사변이래수차강화시켜스나그래도철저하지못한 점이잇다하여 경무국에서는 이번에또다시 한층더 이에대한강화를 도모하게되엇다

그래서 도서과에서는 일일오전여덟시반부터 총독부 제이회의실에서 고천도서과장(古川圖書課長)통재 도서검열주임관(圖書檢閱主任官)회의를 개최하고 검열취체에관한 만단의사항을협의하기로되엇다

그협의사항은 물론 비밀에부치는것이 대부분이거니와 그내용의대개요는

▲전시하의 육군、해군、공군의 기밀에관한 신문지의기사검열에대한 주의와 ▲일찌기 경고 혹은 게재금지의사항으로서 각신문사에 통첩한 기사의추체 내지처분에관한주의와 ▲또는 이에대한 각방면과의 연락과 ▲시국관계기사의 간담 혹은 의뢰에관한 주의와 ▲주의、경고등을발한 신문기사에대하여 상호간의 착오가발생하지안토록할것과 ▲특히 실무집행에원활한주을 도모하여 편게자들의 지장이업도록할것

등 전후약사십항목에 빠처서 남상협의검토를할터인데 이에압서서 도서과에서 세밀한 지시 주의등이잇슬터이다

그러고 이번에 다시불량서적의 탄압정도를 일층강화하여 아무리 출판을 허가한 서적이라도 시대에 적당치못한것이면 잡지월보기타어떤서적을 물론하고저 국적으로 압수를 단행하기로방침을 결정하엿다 그리하여 이번각도경찰관회의에 이것을지시하야 한후 각도일제히 철저실시하기로 될모양이다 이번처럼한내에들 불량서적이라고 하는것은대개파괴적인것 말하면 동아신질서건설에 다소라도 방해가되는서적、또는편집의취향하면 내선일체운동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서적은어떤것을 물론하고 발견되는대로 여지업시 압수처분을하게되는것이다

保安課에서는 外事主任會議

시국은더욱더욱 중대화하여가드므로 총독부경무국에서는 전시하의가장중대한 반개를가진 방공방첩(防共防諜)진용을다시 한층강화하고자 일일오전팔시반부터 총독부제사회의실에서 하촌보안과장(下村保安課長)통재로각도외사주임관(外事主任官)회의를 개최한다

이회의는 전시국제방첩에관한 회의이만치 물론 극비밀리에서 진행된다 대개그내용인즉、사변을중심으로 유언비어를 조작하여 제삼국의선전의재료를 제공하거나 또는제국의 비밀이상대국에누설하여선시국책에 중대한영향을밋치게하는것등 일반간첩(間諜)에관한 취체를중대보나 일층단여통제하여 일대검거선벽진을 칠터이다

굴뚝이무너저서 生徒八名負傷

【總督府支電】원산지방에는 폭풍이불어서 삼십일일오전 열한시오십분에 원산부남석동(元山府南石洞)사립 광명(光明)소학교에서는 벽돌로만든 굴뚝이문허저공부를 하고잇던생도 여덟명이상처를입엇다

精神異狀少女出家

부내도화정(桃花町)사십오번지 이영석(李榮石)의녀 이복순(李福順)(七)은저간의 정신이상이생겨집안 사람들이 보호중이던바 삼십일일 오후두시경 집안 사람들이업는 틈을엿보아 어데로인가나가버린채 늣게까지 돌아오지안하경찰에수사원을내엇다

白蝦船夫들에 虎列刺豫防注射

얼마전상해(上海)에 상륙한중지나의 호렬자는 그후 조계당국의 필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머즐줄을 몰라 지난십오일부터 이십일에 이르는 한주일동안만하더래도 신환자 열네명을 내이고잇는형편이라고한다 그래서 경기도위생과에서는 작년의 쓰라린경험에 비추어 초여름부터 방역진을 치고 대기의자세를 취하고잇기는하나 김장철을앞두고 요즘 특히 새우젓단속을 엄중히할필요가 절실히잇다고해서 삼십일일현재 한강하류인 마포(麻浦)와 현석(玄石)부근에 들어와잇는 황해도새우젓배의 선부이백명에 일제히 호열자 예방주사를 주엇다

通遼驛附近에 黑死病

요즘에 만주통료역(通遼驛)부근에 흑사병(黑死病)이 발생하엿스므로 조선철도국에서는 그쪽방면으로가는 여객은 한동안 취급아니하기로되엇다

軍司部全員이 愛國日記念獻金

구월일일의 애국일에 조선군사령부에서 군사령이하 전원이 월급의 삼십분지일 혹은일급의 하루치를 떼어내여서 충렬헌창회에 바치기로되엇다

生業報國獻金

저간종로부에서 수회한 생업

보국(生業報國)창립회에 출석하엿던 수강자전원은 창고봉(張

九月의메모

무더던 팔월도 지나고 인제는 가을바람이 입교(入郊)하는 구월에 들어갓다

이달초하루는 애국일이자 흥아봉공일(興亞奉公日)이며 관동진재(關東震災)기념일이라 국민은 절주(節酒) 절식(節食)하는 날이다 또 금년의 한재(旱災)때문에만주속의 수입관세를 철폐하는것도 이날 취인소에정조(正租)가 상장하는것도이날부터이며 전문 대학의개학날이기도하다 이튿날은 익어가는 곡식에 바람이 두려운 이백십일 경성에는 방곡(放穀)협의회와 하백미상조합이 결성되는등 금년의 한재상을 엿볼수잇다 그리고 나흘날부터 엿새동안은 대규모의 국민방공연습(國民防空演習)이 계속되며 십륙、칠양일에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경성에서 대일본청년단대회가 열리는 의의기픈날 십팔일은 아직기억에 새로운 만주사변의 기념일 이십삼일은 추분(秋分)이자 추계황령제(秋季皇靈祭)의날이고 이십칠일은 중추의 명절 추석(秋夕)날인등행사만흔 달인데 이달의중요행사는 다음과갓다

1日=興亞奉公日(愛國日)▲高門大學開學▲關東震災記念日▲滿洲粟輸入關稅廢止▲取引所正租上場▲關東震災記念日▲禁酒日▲公衆電話度數制實施 2日=二百十日▲放穀協議會結成(京城)▲韓白米商組合結成(京城) 4日=中朝鮮地區國民防空演習開始(六日間) 5日=大日本靑年團大會準備協議會 8日=白露 12日=二百二十日 13日=司法保護日▲乃木祭 16日=日本の滿洲國承認記念日 16日=大日本靑年團第十五回大會開催(二日間)(京城) 18日=滿洲事變記念日 23日=秋分▲秋季皇靈祭 27日=秋夕

(사진은 고개숙인조이삭)

公衆電話는度數制로

長距離電話取消料도改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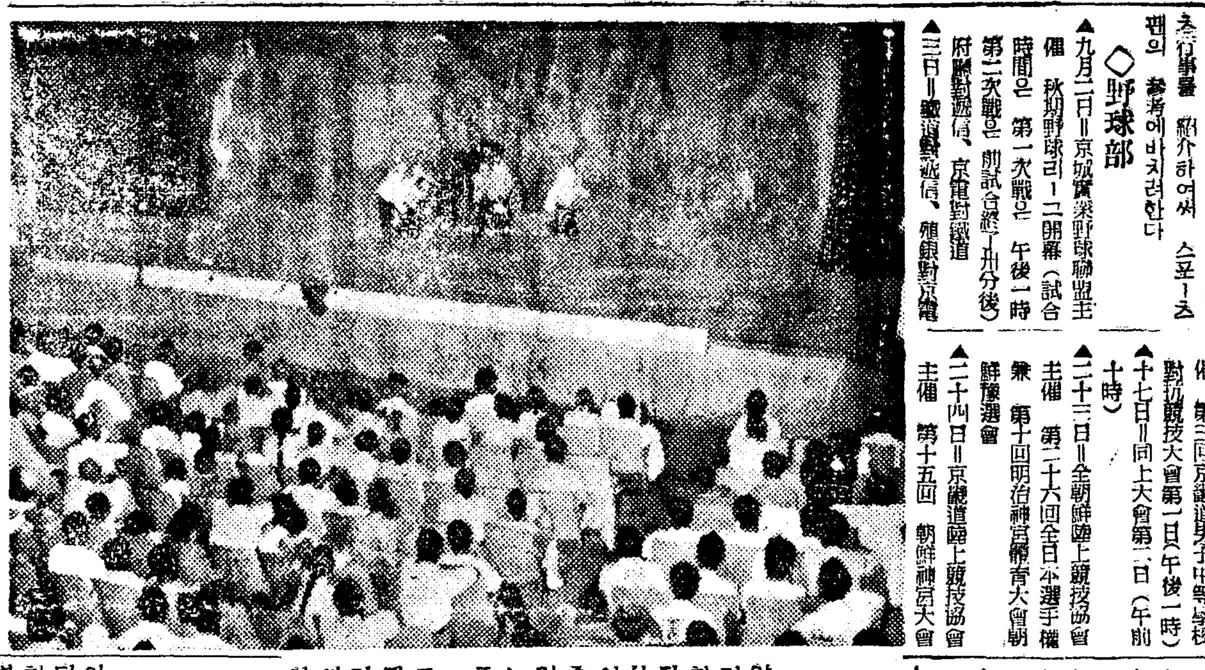
全朝鮮一齊히九月六日부터實施

기보=오전한시이면 얼마던지 이야기할수잇도록 공중전화규측이 고처진다=체신국에서는 전조선대도시 거리의전화기 공중전화와 우편국소전화기로 시내통화를하는데는 종래의 시분제(時分制)를 도수제(度數制)로고치기로되어 오는 구월일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되엇다 따라서 종래 삼분간나되면 오전짜리를넛치안흐면 이야기를 계속할수업던 불편은 일소되고 마음것 이야기를 할수가 잇게 되는데 다른 통화를 취급하는데 필요가생길때에는 삼분시나면 끈허지는 일이잇슬뿐이다

체신국에서는 이와동시에 시외전화취소료에대하여서도 개정하여 종래는 시외통화신청자가 나오후 전화국에서 청구자를불러나오지 안흘때는 취소료를밧지안헛스나 이번에는전화가고장이외에는 보통통화는 한시간시급통화는 삼십분이내이면 일통화료의 오분의일에 해당하는통화취소료를 밧기로되엇다 이것은청구자가 이야기를 하고십흔 시간보다 빨리상대자가 나올때 또는 통화취소료를 물시안흐라고 전화국에서 접속을비롯하엿서도 회정대답하지안는 경우가 잇서 다른시외통화취급에 지장이생김으로 그것을 미연에막기 위하여 유료취소로 고친것이다

郵所窓口써비스

구월일일부터 매월초 이튼날에 실시하는 흥아봉공일(興亞奉公日)에 체신국에서는 전조선우편국소의 창구(窓口)취급사무중우편저금파 간이보험불입금사무만은 취급시간을 보통보다 시간늘여 밧기로되엇다



阿片戰爭劇開幕

昨夜부터府民館에서

영국이 동아에잇서서 지은죄악사중에서도 가장악착한 아편전쟁(阿片戰爭)의 진상을 폭로한 배영극『아편전쟁』은 신극단체 낭만좌(浪漫座)의 손으로 삼십일일밤부터 부민관에서 첫날의막을 열엇섯는데 만장의 관중으로부터 다시한번 영국의천인공노할 동아침략의 경로에분노를 느끼게하여 기픈 감명을 주엇다

그리고 연극『아편전쟁』은아프로 사일까지 계속하여 상연되고 그후는 지방순회로 나갈터인데 조선배영동지회연맹경성배영동지회에서 후원한다(사진은 연극장면)

已妻刺傷犯人 不遠間逮捕?

작보=말안듯는다고 열네살의 안해를 낫으로찌르고 이를말리던 장인장모에게까지 중상을 입히고 도망한 데릴사위=고양군 벽제면 문봉리(碧蹄面文峰里)이백이십사번지김정구(金丁九)(二〇)=일명노마(老馬)=의 행방에 대하여서는 소관서대문경찰서중지(中地)사법계주임이형사대를 독려하여 사방으로수사중인데 대개범인은 부모면의친척방으로 도망한듯한 혐적이잇서이방면에 수사의손길을펴고잇서범인체포는 시간문제일뿐이라고중지사법계주임은 말하고잇다

馬丁募集

용산사단사령부에서는

이번에사령부에서 마정(馬丁)이십여명을 모집하기로 되엇는데 희망자는오는 십일까지에 이력서를가지고 용산사단사령부 수의부(獸醫部)에 와주기를 바란다 조선사람이나 내지인이나 경험이잇거나 업거나 모두 조타하며 대우는 월급이외에 옷갑도주고사망하면 우대할터이라한다

스포-츠의가을 今月의行事

爽秋…스포-츠의씨-즌은 이윽고닥처왓다 구름놉고 바람맑은 조흔컨디순에 한껏마음껏젊은용사들의 가슴은뛰고 피는끌른다 해마다 九月될마지하면한여름동안 炎熱을征服하며 鍛錬한健兒들은 母校와鄕里의 名譽를짊머지고 覇爾하는 스포-츠豪華版이 各地에展開되어 이르는곳마다 스포-츠의 興趣를滿喫케한다 野球、水上、陸上、庭球、蹴球、卓球、籠球、럭비-、拳鬪等 가진部門의大會가 連續的으로 開催되는 九月의스포-츠行事를 紹介하여써 스포-츠팬의 參考에바치려한다

◇野球部

▲九月二日=京城實業野球聯盟主催 秋期野球리-그開幕 (試合時間은 第一次戰은 午後一時 第二次戰은 前試合終了卅分後) 府廳對遞信、京電對鐵道

▲三日=鐵道對遞信、殖銀對京電

▲九日=遞信對殖銀、府廳對鐵道

▲十日=殖銀對府廳、遞信對京電

▲十六日=鐵道對殖銀、京電對府廳

(以上全部京城球場)

◇水上部

▲三日=第十六回京城府體育協會主催 第一回府民體育水泳大會

▲十日=第十五回朝鮮神宮奉賛體育大會 水上競技大會 (以上京城府營)

◇陸上競技部

▲八日=學校對抗運動會

▲十六日=京畿道陸上競技協會主催 第三回京畿道男子中等學校對抗競技大會第一日(午後一時)

▲十七日=同上大會第二日 (午前十時)

▲二十三日=全朝鮮陸上競技協會主催 第二十六回全日本選手權兼 第十回明治神宮體育大會朝鮮豫選會

▲二十四日=京畿道陸上競技協會主催 第十五回 朝鮮神宮大會

▲二十八日=東大門內女子小學校[illegible]

▲三十日=朝鮮主催 第十六回全朝鮮女子庭球大會

(以上全部京城[illegible])

◇庭球部

▲中旬=京城實業[illegible]主催秋期리-그開始([illegible])

▲中旬=第九回私立中等學校庭球大會(場所未定)

▲下旬=藥專主催 第十回中等庭球大會(藥專코-트)

▲廿三日=東亞主催 第十七回女子庭球大會

◇蹴球部

▲三十一、卅一、四의三日間=大[illegible]主催 第十一回 全朝鮮中等學校蹴球大會 (大學球場)

▲下旬=朝鮮學生蹴球聯盟主催秋期토-나멘트大會(場所未定)

◇卓球部

▲十日=全朝鮮實業卓球大會 (朝鮮日報社大講堂)

▲十七日=第十五回朝鮮神宮奉賛體育大會 京畿道及京城府豫選(朝鮮日報社大講堂)

▲廿三、四兩日=全朝鮮女子專門學校卓球리-그(同上)

▲三十日=第十六回女子高普리-그大會卓球大會(京城女實卓球場)

◇籠球部

▲下旬=朝鮮學生籠球聯盟主催秋期리-그(大學코-트)

◇럭비-部

▲三日=龍中對京商、京城럭비-俱對鐵道工場、鐵道對普專 (龍山球場)

▲五日=龍中俱對醫專、養正對鐵道工場(同上)

▲六日=藥專對龍中(同上)

▲九日=京商對普專、法專對龍中(同上)

▲十日=龍中俱對鐵道工場、鐵道對養正

▲十一日=鐵道對藥專(同上)

▲十三日=京醫專對龍中 大學對法專(大學球場)

▲十五日=道商對普專(龍中)

▲十六日=大學對龍中大豫對京師 京醫專對法專(同上)

▲十七日=鐵道工場對京商、國道對高工、京城럭비-俱對龍[illegible](同上)

▲十九日=鐵道[illegible](同上)

▲二十日=[illegible](同上)

▲廿二日=京城럭비-俱對龍中俱

▲廿三日=龍中對京商、大學對高工(同上)

▲廿四日=京城럭비-俱對[illegible]

▲廿七日=龍中俱對大學、[illegible] 鐵道工場(同上)

▲廿八日=藥專對京商、高工對龍中(同上)

▲三十日=鐵道對普專、龍中俱對[illegible](同上)

◇拳鬪部

▲十、十一、十二의三日間=中央基靑主催 全朝鮮拳鬪大會 (靑年會館)

玄海男拳鬪第二戰

京城서開催計畫中

米國에서 돌아와 第一戰에 스톤웰드選手를判定으로이긴 平로拳鬪界의至寶玄海男君은 第二戰을 京城에서 擧行하려고 計畫中이던바 挑戰者 左右田君(宋基德)를 相對로 九月十六日에 行하기로 內定되엇던것을 當한『푸로모-터-』가 업서서實現되지못하고 九月下旬頃까지는 擧行코자 各方面과 交涉中에잇다한다

中華蹴球도參戰

日滿華競技 今日부터本舞臺

待望의日滿華競技大會는 今一日正午에 스타-트하는 마라손競走로서 本格的舞臺에 들어가 大規模의 南嶺綜合競技場에서 體操、마스께임、蹴球戰(中華對滿洲)이열리게 되엇고 排球(日本對滿洲)와 籠球戰(日本對中華)은 第二會場에서 열리게되엇는데 天津地方水災로 因하야 中華民國選手가 廿四名이나 參加할수업게되엇던것을 軍當局의 盡力으로 二十九日午後五時 蹴球選手九名、籠球選手三名、役員二名이 新京驛에 到着하여 中華蹴球를도 이에 出場케되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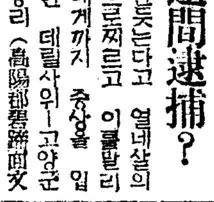
都市對抗軟式野球 釜山軍優勝

第四回全朝鮮都市對抗軟式野球大會決勝…殖銀(京城府代表)對釜山(慶南代表)戰은 前日의 二對二同點의 뒤를이어 昨三十一日午後五時十分부터 京城球場에서 大平(球)上村、審野、川人(壘)四氏審判下에 京城軍先攻으로 열린바 結局七A對五로 釜山軍이 優勝하엿다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釜山	0	2	0	4	0	1	0	0	A	7A
京城	1	0	0	2	2	0	0	0	0	5

曆

▲九月一日(金曜)陰七月十八日▲干支辛丑▲日出午前六時二分▲日南中午後零時三四分▲日入午後七時五分▲晝間十三時二分▲月出八時一分▲月入七時五十七分▲滿潮(仁川)午前六時三十五分 午後六五〇分



태풍이 조선을 피해서 지나갓다. ◇ 한재의 딱한 사정을 알고 인사를 채린모양

◇ 아들속인 어미 친구속인 친구, 안해찌른 남편등등…… ◇ 이 사람들에게 어미、친구、남편이란 명사를 부처야 하는게 도비극. ◇ 『운전수의 규측위반은 영업주에게 책임업다』공 ◇ 책임을 하여튼 제발 사람만 치우지마오.

颱風動向에對한 注意全部解消

三十一日午後三時仁川氣象臺京城出張所發表=태풍의동향에관련하여 주보한주의사항은 전부해소되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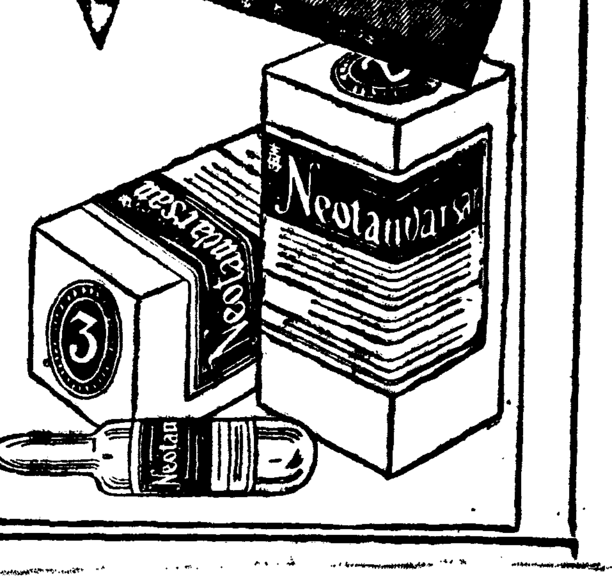
今日…天氣…晴東風

靜脈注射用

ネオ・タンワルサン

驅黴砒素劑

國産品の嚆矢



二十五年의 光輝잇는歷史와 熟練된技術、完備된設備에依하야 吟味精選된ネオタンワルサン은 專門諸大家의 推奬에 依하야 年年그聲價가 益益노파진다

模造品에注意

驅黴成績의完璧과治療의完全과를期하는臨床家諸位는모두本劑를愛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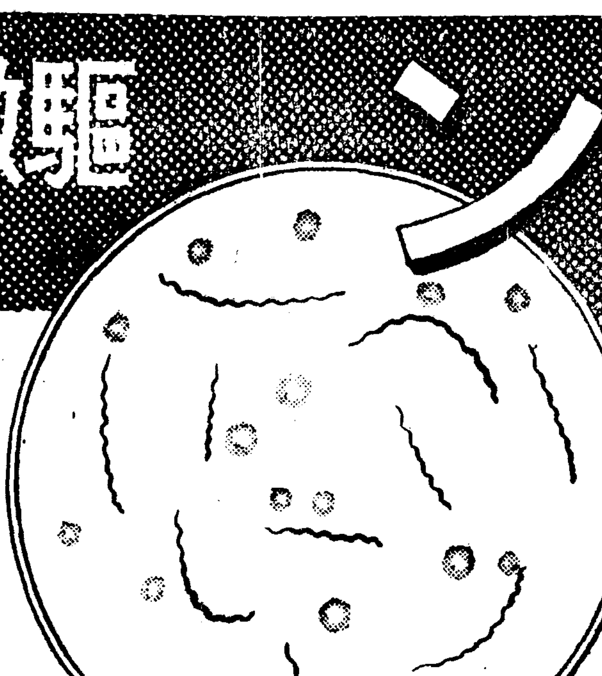
適應症

黴毒의 各期와 黴毒으로 이러나는 各種의 隨伴症狀의 治療와 豫防에適함。

또 脊髓癆、痲痺性痴呆、回歸熱、一般스피로헤-데에因한 疾患마라리아、鼠咬症、氣熱、瘴熱帶苺痘等에도 特效잇슴。

또 天疱瘡、扁平紅色苔癬、鱗屑疹等 砒素劑應用의 모든範圍에 良效잇슴。

包裝 一號(〇・一五瓦) 二號(〇・三〇瓦) 三號(〇・四五瓦) 四號(〇・六〇瓦) 五號(〇・七五瓦) 六號(〇・九〇瓦)



또 靜脈內注射不可能의 患者에 適當한 皮下注射用 ミオ・アーセミン 잇슴

또 砒素劑와 交互使用에 適當한 蒼鉛劑キフロン의 選用을願함

製造發賣元 第一製藥株式會社

本店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三丁目

支店 大阪市東區道修町二丁目

出張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百九十六番地

〃 奉天市大和區琴平町三番地

NTO

中部版

二萬圓國防獻金
開城蔘業會社에서

【開城】지난삼일개성삼업주식회사(開城蔘業株式會社)제삼회정기총회에서는 일반주주에게 일할씩의 배당이된다는 영업보고가잇자 삼백여명주주는 만장해 하는날에지에 총후보국의 ... 으로 나라를위하여 ... 시할수업다고 이만원의 국방헌금을 헌납하기로결의하엿다

後蔘의協定價格에 蔘圃耕作者는反對
一次에四圓밧겟다는걸三圓만하라다고
代表뽑아專賣當局에陳情

【開城】지난삼십일오전열시반 「개성삼업주식회사」회의실에서는 개성삼업조합(開城蔘業組合)정기총회가 조합장 공성학(孔聖學)씨사회하에 개최되엇다 동회의 중요한의안은 금년 후삼(後蔘)값 결정에대한 것이엇는데 경작자인 조합원들의 희망은 적어도 일차(一次)에사원을 바더야 한다는 것이엇스나 감독판청인 전매당국은 제반물가를 억압하는 대국적견지에서 작년가격보다 삼십전이상해서 이원오십전을 바드라고 주장하엿다 그러나 삼포경작물재는 오할이상이 뛰어올랐다는데 삼십전이상이란 말이안된다고 주장한 동조합 역원들은 전매당국 역삼과장(蔘課長)과 개성출장소장을 방문하고 절충한결과 삼원을 바드라고하게 되엇다 그래 이협정가격을 총회에 상정하엿든바 조합원간에는 전기와가치 물재는 오할이상의등귀를 보앗는데 후삼값은 삼원바게 안준다면 근본에빼앗고 후삼값을 유지하기를 목적으로 하고 조직한 회사창립취지에 어그러지지 안느냐는 비판과또는 일가치 끈판를밧고잇는 현상이 타지방삼갑에 비하여 전매국판내의 삼값은 너무떠러진것이니 여기에 수긍할수업다고 반대의기세를노핏다 따라서 이협정가은 큰문제인바 그곳버는 월여경문제는 보류하는동시 임시역원회에서 다음파가치 교섭위원을 다섯명을 선정하여 전매당국에 억울한 원정을거듭진정하기로결의하고 산회하엿다

金洛雨 林漢渲 孔鎭泰 金永輝 外一人

正租飢饉으로 水原에도困境

【水原】수원읍도 삼만칠천여명의 인구를 포옹하고잇스므로서 매일가치 육, 칠개소의 각정미공장에서 찌여내는 백미로써시민의 식량을공급하던것이 지난장날부터는 원료인정조(正租)의기근으로 각정미공장은 휴업상태에 빠젓고 각촌장에는 쌀과보리는 가 나오지안하서 일반소시민은 ...

開城人蔘도旱害
比前年五萬坪減豫想
오는十三日부터採堀을開始

【開城】개성삼업조합(開城蔘業組合)에서는 오는십삼일부터인삼채굴을 시작한다는데 금년채굴평수는 이십오만여간으로 작년보다 약오만평의 감소를보엿다하며 금년경작상황은 인삼본내한작물(耐旱作物)이때문에 대풍작이라고한다 그런데 가물로 너무심해서 삼의발육이 아직완전치못해 조합원간에는 채굴기를 연기해달라는 요구도잇는바 제반준비를 완료한 전매당국에서 이를양해할지가 의문이다

倉庫에侵入 다꾸앙窃取

【水登浦】본적을 충남공주군정안면고송리(公州郡正安面高松里)에두고 일정한주소가업는 황순백(黃順伯)(二七)과 본적을 충북음성군대서면 내산리(陰城郡大西面內山里)에두고 역시 주소가일정치안흔 김일봉(金日奉)(二○)외 삼인은 공모하고 지난팔월삼십일 새벽하시반경에 우차를끌고부내 번대방정(番大方町)삼번지 ... 니 시까약팔원어치의물건을 유유히 훔처실어가지고 나오다가 마침순찰중의 소판영등포서원에게발각체포되엇는데 그중장마선만은 도주하엿다

烏山에도降雨

【烏山】기다리든비는왓다! 오나날이 파라먹는 식량으로 매산시방에는 지난이삼일저녁때부터 내리는비는 부실부실오다 말다하기를 삼사일까지게속하엿다 우선각종농작물의 해갈은 충분히되엇고 김장비도충분하다하며 감당에조를내던 사람들도 생기를띠웟다

職工感電即死

【水登浦】시흥군동면 구로리(九老里)에잇는 만동기계제작소 ...

保導聯盟을擴充
開城은分立, 水原도準備中
仁川은卅一日에結成

기보=인천보도연맹이 새로독립해서 생기기로되어 예정대로 삼십일일오후세시에 인천중학교에서 발회식을거행하엿다 종래경기도에는 초중등학교생도의보도기관으로서 경성보도연맹하나박게는업섯고 여게 개성(開城)인천(仁川)양부가 함께 드러잇섯는데 세간이 느저감을따러사무적으로여러가지 불편한점이잇스므로 지난십삼일에는 개성이그리고 삼십일일에는 인천이따로갈려서나오게된것이다 아프로수원(水原)에도 현대를보아서 보도기관하나를독립시킬 예정이다

廣州軍이優勝
驪州蹴球大會에서

【驪州】지난팔월이십칠、칠팔일 간 여주공설운동장에서열린 본 ...

靑川有志들도 道路改修陳情

【忠北支社發】충북 괴산군청천면(槐山郡靑川面) 면협의원 김문회(金文會)외지 하유철(河有澈)씨등 양씨는 지난이십구일 내도하여 도판계당국을방문하고 청천·증평(曾坪)간과 괴산·화양동(華陽洞)간 도로개수속히실시하여 달라고 진정하엿다고한다

忠北道臨時道會
九月末內로召集

【忠北支社發】충북도당국에서는 한해이재민구제대책에대하여 방금충북도당국과 절충중인바 그구체방책의 각종공사기공에 잇서서의 결로와 또는 이한발로인한 사십여만원 세입결함에대한 심의등을하기위하여 임시도회를 개최키로되엇는데 무엇보다도 이재민구제목적의 각종공사기공이 급하판계로 하로라도급히 도회를개최코저 도당국에서는 준비를 급히하고잇는바 대체로는 구월말내로 소집하게되리라고한다

吉田氏辭任問題再燃
場內의空氣險惡
仁川臨時府會席上에서

【仁川】인천부회는 기보한바와가치 지난삼십일 오후한시부터 부회의실에서 출석의원이 십오명으로 영정(永井)부윤이의 장석에 착석하고 개회인사를마친다음 의안제출의회부설명이잇서 십삼번까지 심의를마치고 일반질문에 들어갓다

▲鄭光淳議員=대화정구획정리를 마치면 수택지로서 매각할려는가 공장용지는 매각할려는가

▲府長=그곳은 장내에수택지와 상업지로 팔을것이다

▲張光淳議員=구획정리부담금문제에잇서서는 부에서 금융알선을해주드록 말하엿는데 그 후 어떠케되엇는가

▲議員=금융알선에대해서는 개인별로 알선하기로되어 각은행에 소개하엿다

▲申鳳儀議員=대화정구획정리를따라 금곡정의 북부간선도로의신설문말미암아 그곳주민측에서 부의원들에게 진정을하고 부에서는 오늘이전비는직접지인에게지수하고 지주는계수어서 철거당한그들이 갈곳이업스니 부에서는 이문제를 어떠케 처리할려는가 명확한답변을 바란다

▲難波主事=그것은 벌써 이비를 지불하엿스니 부에서는 사업만진행하겟다는 주장의답변이엇다

▲議長=... 상정한의안을 전부 심의하고입치가결한후 동네시에 의장으로부터 폐회선언을하자 전중(田中)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를하여 장내의공기가 갑자기변하여다

▲田中議員=지난삼월이십일 부회의 속기록에 전부의장 길전수차랑(吉田秀次郞)씨의 사임문제에 ...

哈爾濱孔子廟
修理키로決定

【哈爾濱】대성공자(大成孔子)의 유덕을 찬양하여 빗나게하는 고대문화의 위용을 그대로 보여주고잇는 공자묘(孔子廟)는 할빈에잇는것이 전만을 통해서유명하다 그런데 문묘(文廟)가이미 이백여년에서 무른데배념이거듭한 오늘에와서는 바탐에갈 ...

工都仁川의大氣焰
六工場一齊進出
基地도買收, 明春부터起工

【仁川】대공업도시로서 비약하고잇는 인천항은 요즘 각지의 공업이 진출하게되어 한꺼번에 여섯공장이 진출되어 공도인천의 발전을한층 촉진하고잇다 지난삼십일 부회에상에서 부영매축지의 의장을 매수하여 명춘부터 공사에 착수하리라 하며 또 조선중앙미유주식회사(朝鮮...)에서는 ...

甘雨
錦山地方에沛然

【錦山】인제군지방에는 지난달 ...

江原道水産業飛躍
總産額二千九百萬圓
比前年度一百萬圓增의好績

【春川】강원도의 수산업은 먼저고기잡이의 방식조차 재래식을버서나 근대화되고잇서 만큼 수개년간 비약적발전을 보이고 잇승뿐더러 엇자들의 질적개선과 또는 가공제조도 대규모로 기업화되고잇스므로 아프로의발전은 크게촉망되거니와 지난삼고가 이전의 팔십오만전칠 ...

	今年	前年
漁獲高	[illegible]	[illegible]
製造高	[illegible]	[illegible]
養殖高	[illegible]	[illegible]
製鹽高	[illegible]	[illegible]

愛國班結成準備

【全州文社發】방방곡곡이 행배하게일어나는 애국심의발로는수만흔 미담가화를 싸내고잇는오늘도한개의가화가잇다

旱害克服九對策
長湍各面長會議로決定

【長湍】금년한수의 한발이심저 고자 장단군에서는 지난이십일오전구시부터 군회의실에서 각면장회의를 고교내무 최권업주최하엿는데 개회벽두에 서군수로부터 협의사항에들러가서 미리부터 순비중의한해대책안에의하야 한해이재민구제지도에관한의견을 기탄업시 교환하야칠만군민이도 하야금 정신산업대각오를 가지게하야써민심의안정을 도모하는동시에 제구제사업을 일으켜서 자여갱생의 정신으로 난판을 돌파하야 비상시국하의 총후국민적의무를 이행업에유감이 업도록 매진하기로되엿다 당일중요협의사항은 다음과갓다

一、旱害罹災民의精神的指導要旨
二、旱害對策樹立方針
三、農村振興會에在한共助共勵計畫
四、小作料의減免對策
五、叺延原料藁의需給調整
六、木炭의增産
七、蠶桑作及休閑地利用의獎勵
八、旱害에依한 畜牛放賣의防止
九、勞賃撒布

旱害는秋繭에도深刻
約一割減收를豫想
京畿道農務課의推測

경기도 금년가을 고치(繭)는 문싸그대로 귀엽을만 아니라 쇠초 일할정도의 증산을목표로 다대한 비용만허비한 까닭으로 작년보다도 잠종(蠶種)삽천상을 당성민을식량이 끈난하므로 그더노하주어던것이 이번한발때문에 조합이사유세근(柳世根)씨는 이에뽕이시원치안허 따라서고치도 룰고려한나머지 천여명의 조합맹이가 적어질것은면치 못할운원들을 시교구제코자 만주좁쌀명에잇다 이때문에 금년가을고을 구입하여다 배부할예정으로기는 상당한감수가 예상되는데 방금조합원들에게 대차신청을취경기도농무과에서는 적어도일할급하는중이라고한다 이상의 감수는면치못할것으로보고잇다 틀것은 발전되는대로 어떨에서할터이라고 경찰서에서 통고하엿다

新昌金組에서도 滿洲粟購入手續

【牙山】충남아산군내선장(仙掌)면신창금융조합지소(新昌支所)관할신창면(新昌面)내는 약유할이상이식부(植付)되엇스나 그동안 수우되는한발로 말미아마일반농가에서는생활파고 발동기를사용하여 급수에노력하엿스나 논은 ...

唐草粉도 協定價實施

【咸南文社發】여러가지 말성을이르키고잇든 한남부내 당초분(唐草粉)도 그업자들이 모아서 가격의 협정을하여 아래와가치 자숙가격을 정하고서 오는구월일일부터 실시키로되엇다 그리고 종래당초분이외의 유록성년 ...

協定價格		
純品細粉	升	一、一○錢
一同 荒粉		一、○○
一等品		八○
二等品		六○

麻浦線과往十里線에 電車臺數를減少
從來十臺式을八臺式만運轉하여
兩處沿線住民의不平爆發

경성전기회사(京電)에서는 마포선(麻浦線)에 왕십리선(往十里線)에 종래 열대씩운전해오던 전차를 삼십일부터 갑짜기 여덟대씩으로 주리어 그러잔허도 선방면 주민들은 큰불만과불평을이르고 시비가만던 이두 호잡을이르고 그리잔허도 ... 이조이유는 구시내방면 즉 간선전차의 대수가부족하여 면에서 두대씩의 전차를 구시내로끌어드린것이라는데 구시 ... 예종내에도 부족하던 전차를더 태지대로 점점발전되는 이지대 가장만흔 통근자를 가젓스며수 고구시외의공장지대와 각회사에 면학생과회사의 편인에도 불구하 려잔흔 마포, 왕십리두선에비하 도본정(渡邊定)씨는 지난삼십일 자당기명(昆明)을 당하여 금삼십원을 도군사후원연맹 기금으로 기부하엿다고한다

忠北警部補考試

【忠北支社發】충북도경찰부에서는 지난삼십일 오전아홉시부터 도청제일회의실에서 경부 경부보 고시에비시험을 시행하엿는데 수험자는 전부이십칠명으로 본시험은 오는구월이십오일 시행한다고한다

列車投石犯人
九歲少年으로判明

【全南文社發】철도사고를 방지하고저 철도연선주민전체를 ...

旱害對策委員會
牙山郡廳서開催

【牙山】충남아산군에서는 한해대책위원회를 지난이십구일 아산군회의실에서 진군수(晉郡守)를 사회로 개최하고 재민의식량을 제 각종사업기타 세반사항을 신중협의한후 동일오후에 산회하엿다고한다

달콤한工業組合
市內菓子業者를網羅
結成會最初의臨時總會開催

공업조합이생겻다 경성시내 마자제조업자들은 원당(原糖)과 밀까루가, 사변때문에 원할히배급되지안는데 견디다못해서원료공동구입, 판매가격협정기술의 공동연구지도등으로 공조동영을 목적하고 공업조합을 만들기로되어 팔월이일 공업조합령에 의한정식인가도 마혓스므로 삼십일일 오후두시부터경성호텔에서 결성후 첫번의임시총회를 열엇다 조합원은 일백이십이명 이름은 경성과자공업조합이다

要救濟者六百戶에 就業을積極斡旋
水原邑當局旱害對策

【水原】천、선은 미증유의 한재로인하여 각도각국에서도 한해극복의 대책을 강구중이바 수원읍에서는 한해의 구제를요하는백여호에 대하여 채석장(採石場)하천공사(河川工事)의、각공사장에 사장에 소개하여 일을시키는중 ...

遠距離運賃關係로 穀物의出廻稀薄
仁川精米業者들困境

【仁川】곡항인천에서는 신곡출회기를 마지햇스나 각지의한해로말미암아 지방의 재고미가잇음에도 불구하고 곡수율은 팔지를안코 인천부내의 각정미소에서는 벼를 사드리지 못하여 곤경에 빠저다한은 본보에수차 보도한바잇거니와 요즘한층더심한것은 각지의 쌀값을 최고최저로 공정가격을결정하여 면동이업거나와 벼도 인천지방에는한곤에 십원전으로 몬을밧다시피 공정가격을정하엿다 그러므로 거리가먼곳에서는 운임관계로 인천으로 가지고오는수량이적어서 벼를살라하나현가잇스므로 ...

洋襪窃盜犯被逮

【木浦】무안군하의도승팔리고춘기(務安郡荷衣島勝八里 高春基)(二一)는 지난이십삼일저녁에 하의도 장종태(張鍾泰)잡화점에서 양말여섯켜레(시가일원팔십전)를 훔치다가 발각되어 경찰의엄중한취조를 바더오다가 작년일월일에 그상점에서 현금일백칠십일원을 도난당한사건도 자기의소행인것을 자백하엿다는데 일년반전에 미궁에들어간 사건이 양월반만에 탄로된셈이라하여 ...

災害地免稅調査

【高松】경북청송지방은 미증유의 가뭄으로 재해지로 그면목을 가추게되엇다 이상각공장은 모두명년봄부터 ...

志願兵金君入營
長湍神社에서奉告祭

【長湍】조선육군특별지원병 제일회후기생 장단출신 김경식(金敬植)은 지난삼십일오전팔시반에 장단신사에서 각관공서 각청단체 각단체대표 ...

淸州渡部氏獻金

【忠北支社發】충북도 이재과장 ...

農會事務所新築

【寶城】전남보성군 농회는여래사무소를 군청에다두고사무를취급해오던바 군비가 완비되엇스므로 사무소를신축키로되어 근근이공사에 착수할터이라고한다

서늘한가을들

新學期부터

肝油는 家庭에서

여름동안에 紫外線을받으며 山으로…바다로… 新鮮한空氣를 채힘것 呼吸하여주시사 어린이들은 充分히 健康體로 되어주실줄믿습니다 이렇게 鍛鍊식힌身體를 가을에서…겨울동안의감기에걸니기쉬운시기까지 衰退되지안토록 抵抗力을保持함에는 무엇보다도먼저 新學期인지금부터 宅에서肝油＝하리바를服用하기시작하서야됩니다

還節期(가을)의 豫防으로!

특히 平時그리큰지못하신 어린이들은 殘暑期에서……가을까지의時期에暑滯와 여름쇠약에 걸니기쉬운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肝油＝「하리바」를 連服식혀주시사 「비타민에이와디ー」를 體內에 充分히蓄積식히두시면 皮膚와 呼吸器粘膜이 病菌에대한抵抗力이 增强되어 가을에서겨울에 걸니기쉬운감기의 예방이됩니다…………

하리바는 지금까지의 비린내나고 먹기실흔 대구肝油에比하여 비타민AD의濃厚한高單位肝油를 小豆만한 糖衣小粒으로만든것……한알은한사시분의肝油 또十餘個의球와比等하며 하로에 단一一二粒으로 충분하며 위장에고장을일으키거나 惡臭가나지않음으로 肝油를실허하는 어린이들이라도 잘먹게됩니다

ハリバ　하리바

東京・大阪　田邊商店

百粒…一圓五十錢　五百粒…十圓五十錢　全道藥房에잇음

HV-K-61

長編小說

사랑의 水族館 【27】

金南天 作 / 鄭玄雄 畵

前回까지의 梗槪

토목기사 김광호(金光浩)(三二)는 평남 양덕부근에서 평원선(平元線)철도공사에 종사하고잇섯는데 팔월어떤날 그회사의 감사역이면서 동시에 대흥『콘체른』의 사장인 이신국(李信國)씨의 영양 이경히(李慶姬)(二二)와 그의 비서송현도(宋現道)(三二)가 공사장구경을와다。 이신국씨는 그부근에 중석광을가지고잇서서 송현도는사장대리로 사무검열을와섯고 이경히는온천에 피서를와섯던것이다。 철도공사를 구경하려고합숙에 광호네서울본집에서 형이위독하다는 전보가와서 이경히와함께 광산의자가용으로 서천을거처 평양까지 동행을하엿고 다시두사람은 서울까지 가치오게되엇다。 이동안 두사람은 퍽접근햇는데 김광호의생각에는 광산에남아잇는 송현도와이경히의 관계가알수업섯다。 그러나 두사람은 피차간 호감이상의것을 느끼는듯이보이엇다。 서울와서 보니 광호의형 광순이는 결핵성폐염으로 입원중인데 퍽위중하엿다。 그는 드디어세상을 떠낫다。 그러나 그것을 발편으로 광호는형의 애인의동생인 양재사 강현순(姜賢順)(二〇)을 알게된다。

深海魚(二)

현순은 멍하고 놀래듯이 것던 거름을 세웟다。 그러나 광호는 여전히 이쪽을 바라다 보다가 그대로 담배를 꺼내서 피어문다。 광호는 아직도 현순이를 누군지 딱이 모르는 모양이엇다。

현순이가 자기를보고 것던거름을 멈추는것을 광호는어떠케 생각하엿는지 그는담배를피어문채 나츨돌려낭떠러지가 잇는편을 실심히바라본다。

젊은 여자에대해서 외면하는것을예의라고 생각한것일가。

(광호씨는 나를알면서 저러케외면을 하는것은 아닐가? 나를보는것이 불쾌한것은 아닐가?)

하고 현순은 우울한기분을 품으면서 잠시동안을 더그러케한채 서잇섯스나 이윽고결심을한것처럼 그편으로 걸어갓다。

시선을 딴데로돌려서 여자의부끄럼을 덜어주려고 하던광호도 그여자가 제쪽으로 가까히오는 것을알자 다시 얼굴을돌리지안흘수업섯다。

광호의시선이 제의 몸우에떨어진것을 직감한현순은 또한번 거름을멈추엇다。

(어디서 본여자갓다)

하고 광호의 표정이 생각하고잇다。

(확실히 광호씨는 아직 나를 모르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현순이도 새로운 용기가 나는것갓다。

그는 다리를 모두고 가만이 인사를한다。

여자의 똑하지 안흔 인사에 광호는 다소 당황한듯하엿스나 이내 자세를 고치고 마주 인사하엿다。

(전번 병원복도에서 부디칠때 햇던 바로 그 여자엿고나)

하고 광호는 비로소 현순의 의복과 얼굴을 기억에서 차자내엿다。 그러나 그 여자가 자기와 어떤 인연이 엇는지는 아직도 모르는 모양。

『전번은 실례햇습니다』

하고 광호가 말해서 현순이도

『제가 도리어실례햇습니다』

하고 대답한다。

(역시 광호씨는 내가 누군지를알고 잇는지도 모른다)

하고 생각해 보는 순간、

『선생님대에서도 결과가 조치못햇섯는가요?』

하고 광호가 묻는다。

『네?』

하고 현순은 반문햇을뿐 햇다가

『아니、저어……』

하고 저를 어떠케 소개해야 할는지 잠시를 주저 주저 한다。

광호는 제가 실수의 말을 한것은 아닌가하여 제의 경솔을 반성하며 그러나그때에 한발자국을 더 자기편으로 다가오며 나올드는 여자의 표정에서 기색을 살피려한다。

현순은 한참동안 엄안으로향사리다가、

『저어 김선생님 아니신가요?』

하고 이야기를 시작할 박게방도가업섯다。 그이상 단마디로자기를 소개할말이 미처 생각나지 안햇던 것이다。

『네、제가 김광호올시다』

하고 대답하며、 대체 어떠케이 여자는 내의 성자를 알고잇는것일가、 의아하는 표정이다。

『저는 강현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광호는『강현순』이라는 이름마저 딱이는 기억이 안햇던 모양이다。 그래서 현순은다시、

『저 박양지가 제의 언니애요』

하고 설명을 부첫다。

그제서야 광호는 얼굴에 놀라는 표정을 지엇다가 다시 우숨을 띠우며

『네에 그러신가요。 참 내 동생한테 들엇섯습니다 경황이 업시 그러는 통에 한번 뵈옵지두 못하구 도 이러케 이내 알아 뵈옵지두 못해서 죄송스럽게 되엇습니다。』

그럴때엔 광호는 곳잘 두손을 부벼보는 버릇이 엿다。 지금도 모자를 머리우에 얹고는 한팔에 양복을 든채 담배는멍우에 던지고 두 손을 부비며 어야기를 계속한다。

『이러케 더우신데 어렇게 오섯수먼요。 머 안 오사면 어떤가요。』

이러한 광호의 친절한 말에 현순은 여태껏 품엇던 감정도 이저버리고 그저 반갑게만 생각이되엇다。

『오전에 언니한테서 전화는바닷지만 가게가 비어서 한시경에야 떠낫서요。 자동차도안오겟다구 그래 이러케 느젓습니다。』

『머 바쁘신데 안 오시면 어떠선가요。』

하고 다시 한번 사례의말을하고나서

『해가 따거운데 이리로 들어오시지요。 저밖게 아무도 업습니다。』

현순은 광호가 권하는 대로 문안에 들어서며

『그럼 아무도 안 오섯는가요?』

하고 물어본다。

紅燭十雙

申鼎言

連續怪談 ②

범이가 그 흔들리는것이 눈에 어린거리매 거름을 멈추고 우뚝서서

『저것이 무엇이야?』

혼자 중얼대매 천만 또박게가 는 목소리로

『나는 사람이니 좀 구원해주서요』

하엿다。 범이가 더욱 놀라 가까이가서 손으로 마루바닥을 더듬을새 무엇인지 팔에가 척 갱기고 몸뚱어는 만처지지 아니하엿다。

『이것은 무어야?』

하며 범이가 또한의심쩍은 말로 지꺼리니

『내 머리꽁지요』

하엿다。 범이가 더욱 이상이생각하여

『그럼 몸뚱어는 어디 잇단말이유?』

『매달려 엇소』

『어떠케 되일이야?』

하고 범이는 손을들어 더듬으니 그제야 몸에 만처지는데 몸뚱이가 활장가치 구부러젓스므로

『손발은 어디잇소?』

『한데 묵기엇소』

『대관절 어찌된일이요?』

『어서 몸이나 풀러주서요 자세한 말씀은차차하오리다。』

하엿다。 범이가 또한 두손을이리 저리 휘두르다가 버든손끗을따라 아래로 훌러내리니 바시줄이 만처지므로 그바시줄을 묵은손과 발을 마치 도야지의 사속을 묵듯이 묵거매달앗다。

범이가 그묵근것을 풀르고함께 몬문밧그로 나와 달아래에서 비로소 자서히보니 전반가를 머리를 따내린 소복한처녀로서 전실로 꼿도갓고 달도 가튼 절대미인이엇다。

범이가 마음이 황홀하여 어찌할줄을 모르다가

『댁은 어디시며 어째서 이곳에 묵겨 매달리섯소?』

『내집은 남산(南山)청학동(靑鶴洞)인데 여기 묵겨매달린말씀은 차차하지요。』

『그럼 여기서 댁에를 혼자찾자 가시겟소?』

『차자 갈수가 업사오니 수고하시는 김에내집까지 데려다주서요。 내집에가서 자세한말씀을 하오리다』

『그럼 나를 따라오시옵』

하고 범이가 압서서 청학동을 향하엿다。

범이가 청학동에 들어서서는 그 처녀를 돌아다보며

『댁이 어느집인지 압서 가십시다』

하매 그처녀의 여프로 비켜섯다。

그 처녀가 압장을 서서 여리 저리 골목을 돌다가 큰소슬대문이 달린 집으로 들어서면서 범이를 향하여

『이리로 들어오서요。』

하고 또한 중문안으로 빨리들어서면서

『무엇들을 해?。』

하고 큰 소리로써 알은체를하엿다。 그처녀의 목소리가 크게 나자 방안으로부터

『아이구 웬 일이시요?。』

하고 그 처녀와 나이도 비슷하고 어여쁨도 비슷한 처녀들이 모두 그처녀와 가치 눈빗보다 더하게 소복단장을하고 쏘다저 나와 그처녀의 손목을잡고 방으로 들어갓다。

범이가 중문까지 이르러서는 잠간 발을 멈추고 그처녀들을 정신업시 바라보다가 집안을한번 훌러보니 동쪽담 벽에는 낙양송과 백학을 그렷고 서쪽담 벽에는 불로초와 사슴을그렷는데 그채색이 매우 선명하여 비록 달빗아래서 볼지라도 천연 산것가치보이며 그담아래에는 큰화계(花階)가잇고 화계우에는 동백(冬栢) 춘백(春栢) 영산홍(映山紅) 벽오동(碧梧桐)이며 그사이로는 모란(牧丹)작약(芍藥) 월계(月桂) 난초(蘭草) 지초(芝草) 동매(冬梅) 춘매(春梅)와 황국(黃菊) 단풍(丹楓)이 정연하게잇고 그화초사이에는 흰두루미와사슴이 곤한꿈을이루는듯쪼구리고 안잣다。 그리고 동편담을 정면하여는 동일각(東一閣) 동이각(東二閣) 동삼각(東三閣) 동사각(東四閣) 동오각(東五閣)이란 현판을부친 주란화각이잇고 서편담을 향하여는 서일각(西一閣) 서이각(西二閣) 서삼각(西三閣) 서사각(西四閣) 서오각(西五閣)이란 현판이부튼 주란화각이잇스며 그두화각중간에는 보은각(報恩閣)이란 큰화각이잇는데 절로 치면 판은방과가치 보이며 보은각 아페는 연못이잇고 연못중앙에는 석하산이잇스며 그석하산에는 괴석과 창송녹죽이 어숫비숫이 섯고 포도넝쿨、다래넝쿨、어음넝쿨이 회회 친친 엉크러젓스며 연못에는 홍련(紅蓮) 백련(白蓮)이서로 어우러젓고 그우로는 채색이 찰란한 구름다리가 바로보은각의 뜰과 연이어 노혀잇다。 범이가 그찬란한 집치장에 정신이 얼떨떨하여 서잇는중 그처녀가 방에서 다시나와 약간수삽한 태도로써

『누추하오나 이리로 올라오서요。』

하는 말로써 범이를 보은각큰 방으로 청하엿다。

娛樂과趣味

躍進·獨逸映畫界 一年間製作本數百七十!

【東京發同盟】독일영화국(映畵局)의통제와 지도에의하여 일로전진을 계속하고잇는 독일영화계의 일천구백삼십구년부터사십년도 사이에 여름기까지의제작본수는 전부 일백칠십팔본으로서 이것을 전년도의 일백오십사본에 비교하면 이십사본의 증가다 이외에불란서、이태리、서반아와의 공동제작품이사십여본가량 예상되어 독일영화계의 약진상태가 제시되어잇다 이제 이것을 각 회사별로 나누어보면

『토비쓰』四七 『우파』三四 『테라』三六 『바바리아』三三 『메르컷슈·파노라마』十二 『아드라·밋헬·도이체』六 『지-겔·모노폴스·디게-드』十 『데-프』十 『쿤드-』二 『크라비-느』二

配給組合役員改選

지난이십칠일 총회를 개최한 『조선내외영화배급조합(朝鮮內外映畵配給組合)』에서는 다음과가치 역원(役員)을 개선하엿다한다

會長……渡邊(日活)
副會長……李創用(三映社)
理事……高仁文(유나이트)山本(RKO)園田(大都)寺田(松竹)淺原(東寶)

凸問凹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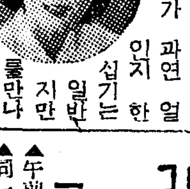
【問】『첨벌렌』영국수상은 왜 늘 우산을 들고 다니나?

前回의【問】남녀의 음성이 다른까닭은?

【答】장님이 들어 분간하기위해서

宋秋蓮과 "낭아우다"

추련(秋蓮)양이라면『으응、그사람―』하고 얼른 알아들을사람은 드물것이다。 그만치 그는 극계로 나온지가 얼마안된다。 그러나 일찌기 지난번 연극『콩쿠르』에 송미령(宋美齡)이란 괴상한(?) 이름으로 낭만좌(浪漫座)의 "멤버"로 가입햇섯다면『올치 그어쁜 미령이말이지』하고 누구나 얼른 고개를 끄덕일것이다。 그 미령양이 즉오늘의 고협(高協)의 추련양인것이다。 그는 또 이상하게도 북해도(北海道)에서 낫다。 그래서 조선으로돌아와서도 한동안은 첫째 우리말을 몰라 혼이낫다한다。 양의장끼는 또 이상하게도『낭아우다(長唄)』라한다。 하여튼 그의『낭아우다』가 과연 얼마나한것인지 한번듯고 십기는 일반이지만 우선그를만나면 뭇고 시픈것은 북해도의 이야기고 북해도의『로-맨스』다。



海外短信

▲『컬럼비아』회사의 신변도의 제작『스케쥬-르』가운데에는『노-벨』상의 창시자『알프렛드·노벨』의 전기영화제작이 발표되어잇는바 전기영화에 잇서서는 특수기능을 가진『와-너-』회사 에서도『"노-벨"전』의 제작기획을 진행되고잇다는것을 제작자『헐·B·웨리쓰』담으로서발표하엿다。 이것은『스웨덴』정부의『노-벨』상 위원회와 및『스칸디나비아』의 각 영화업자의 지도협력하에 제작되는것으로서 이미 배경에필요한 실사장면의 촬영은 시작하고잇다한다。

▼『푸른목장(牧場)』에서널리 알리어진『아메리카』극단의 "스타-"『코-크·코노리-』는 최근『파라마운트』회사가 영화화 하는『쪼셉·코라드』의 장편소설『승리(勝利)』의 각색을 담당하게되엇다한다。

▲『사무엘·골드윈』과 분쟁중에잇는『유나이트』사에서는 이번에 새로『리챠-드·로-랜드·푸로덕순』을 그세력하에 가하여 진용을 더욱더견고하게한후 동『푸로』의 제일회 작품으로서『아-치·L·메-요』감독『바-바라·스탄빅』수연의『"숍프"양』을 제작하기로 되엇다는데 근일중으로 모든『스케쥴』의발표가 잇스리라한다。

▲『와-너-』회사로부터『RKO』회사로 넘어간『존·파로-』감독의 제일회작품은『로버-트·시스크』제작에 의한『리챠-드·딕스』주연의『레노』로 결정한후 곳 촬영을개시하기로되엇다。

▲『하롤드·로이드』는 해마다 인끼자를 모아서 야구(野球)공개시합을 개최하여 거기서부터 순이익을『코메디안·클럽』이란 명의로서 자선사업에 기부하고잇는데 금년에도『미키-·루-니-』『딋사·오-아-』『휴-·하바-드』『빼·쏘즈』등 그야말로 인끼자만 모인『팀』을 조직하여『허리웃드』영화관계자의『팀』과 시합하기로 되엇다。

新星알범 ★이자·미란다 淸楚의 美

▼▼……불란서의 "스타-"들은웬일이인지 조금만인끼를 어드면꼭 아메리카 "허리웃드"로 몰린다。

▼▼……여기에 소개하는『이자·미란다』양도 그러한 축의하나다。 그리하여 불란서에서의 "스타-"인『이자·미란다』는 미국의 신진여배우로써 만족하고 잇는것이다。

▼▼……불란서에서는 양의 "힛트"판은『살아잇는 "파스칼"』이엇다。 양이미국으로와서 아직세상에 내노흔걸작은업다。 그러나 청초한미와품잇는연기로 그큰명일의 "스타-"의 자리를노리고잇는이다。

▼▼……『차-라·레안더』가『가르보』와 갓다면『미란다』양이야말로 오늘의불란서가나흔『디-트리히』일것이다。

라디오 프로

一日(金)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 日用品時勢
▲正午 (東)時報 (東)默禱(一分間)
▲午後零時六分(東)事變歌謠集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가을編物』(二) 任貞嬿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繼續 平南秋季競馬實況(國語) (平壤)―平壤競馬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 月例訓話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거울이야기』 柳子厚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經濟解說 李健赫
▲同八時 (東)吹奏樂 星櫻吹奏樂團 指揮辻順治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公道難 二、唱劇調 赤壁歌 牟香花 鼓手丁元燮
▲同九時 連續講談『赤穗義士傳』(四) 金振九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一) 宋今旋

第一放送

▲午前七時二〇分(東) 아침音樂
▲午後六時二五分(東) 講演
▲同八時三〇分(東) 浪花節

國手對抗大碁戰

龍騰虎咆最高戰

黑、「辰의九」에 杞國憂天傾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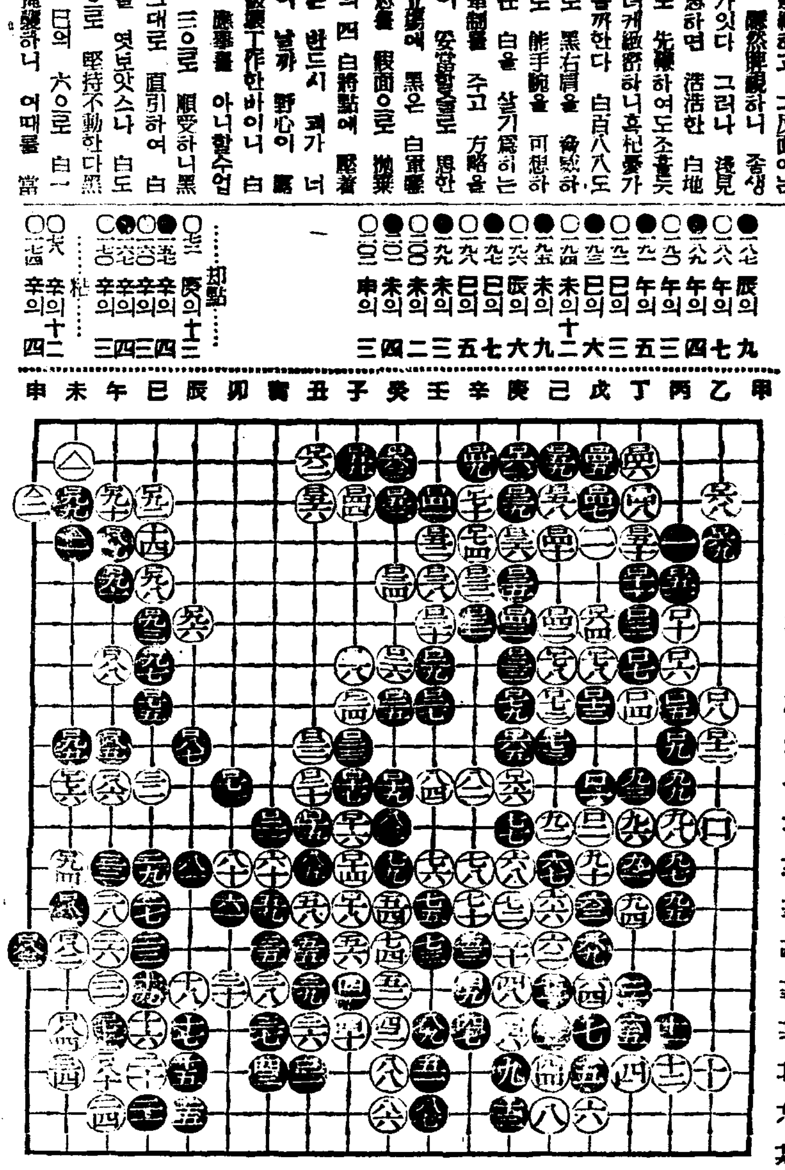
白 盧史楚 ★ 黑先 權秉郁

中原逐鹿을 아메두고 最後의相戰을 도운다。 黑百八七은 聯珠처럼 辰의九에 貫通하니 참 조흔수로認한다 뭐냐하면 白馬를 連絡하고 그反面에는 白三軍을 隱然牽制하니 종생 강할餘地가잇다 그러나 淺見으로 再思하면 浩浩한 白地에 左隅로 先着하여도조흘듯 한데 그리케緊密하니 흑杞憂가 되지 안흘까한다 白百八八도 午의 七로 黑右肩을 脅威하니 참으로 能手腕을 可想하노라 旣往 白을 살기爲하는 脈路에 牽制를 주고 方略을 定하는것이 妥當할줄로 思한다。 어 立場에 黑은 白軍을 殺할 意思를 假面으로 拋棄하고 午의四 白將點에 驟着하니 어느 한드시 꾀가 너무 큰집어 날까 野心이 露出하여 破壞工作한바이니 白으로서는 應手를 아니할수업다 午의 三으로 順受하니 黑이 또 그대로 直引하여 白의 機變을 엿보앗스나 白도 巳의 三으로 堅持不動하다 黑百九三에 巳의 六으로 白一孤軍을 擁護하니 어때를 當하여 白도 應門할 必要가 엿다 만약 一子를 覬念하다가는 三軍이 陷沒할테니 不得已 黑一卒을 捕打하여 越失을 피한다 黑은 末의九로 防備하는것도有理하다 以下 白二〇二까지는 別無新奇手하기로 그만 東之高閣하고 戰局을 回顧하면龍騰虎咆의 決斷場에 非常한變化가만흐나 黑은 종有利를꺼닷고 謹愼하는 態度이듯하다

● 一八七 辰의九
○ 一八八 午의七
● 一八九 午의四
○ 一九〇 午의三
● 一九一 午의五
○ 一九二 巳의三
● 一九三 巳의六
○ 一九四 未의十二
● 一九五 未의九
○ 一九六 辰의六
● 一九七 巳의七
○ 一九八 巳의五
● 一九九 未의三
○ 二〇〇 未의二
● 二〇一 未의四
○ 二〇二 申의三

劫點……
○ 一五七 庚의十三
● 一六〇 辛의四
○ 一六三 辛의三
● 一六六 辛의四
○ 一六九 辛의三

粘……
○ 一七六 辛의十二
○ 一八四 辛의四



自戰記

權秉郁

라이온치마

ライオン齒磨

口臭의除去와 强健한齒牙를…

…가지라면 每日아침저녁으로 라이온치마를使用하야이를닦어야합니다。

●라이온치마는 爽快無比한使用感 淸新優雅한香味 强力徹底한殺菌力과吸着除去力을 가젓스므로 四十年來모-든家庭에서愛用되고잇음니다。

라이온치마本舖 株式會社 小林商店

C―19